

寶珠와 觀音菩薩의 相關性에 관한 研究

執寶珠菩薩像을 中心으로

최미순*

- I. 머리말
- II. 寶珠의 유형 분류와 舍利와의 연관성
- III. 中國 執寶珠菩薩像의 圖像 分析
- IV. 맺음말

I. 머리말

불교미술에서 '莊嚴'은 불교교리의 추상적이고 난해한 내용을 알기 쉽도록 可視化시켜, 일반 중생에게 전달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편이다. 이는 하나의 단어 안에 '概念'이라는 巨視的 범주와 '道具'라는 微視的 범주를 동시에 겸하고 있는 독특한 용어로, 불교라는 종교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유 체계의 산물이다.

그리고 寶珠는 장엄의 개념을 효과적으로 드러내주는 수단 중 하나로, 불교미술의 전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사용되어 온 재료이자 상징체이다. 단순한 裝飾을 비롯해, 佛舍利를 대체하고 상징하는 과정을 거쳐 森羅萬象에 두루 遍在한 法(dharma)을 표상하기

*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수료

까지 활용 범주도 매우 포괄적이다. 보통 七寶로 불리는 진귀한 보물들로 구성되어 불·보살을 비롯한 여러 神格들의 造像과 佛殿 등을 화려하게 장식해, 보는 이가 佛國土의 구체적인 形狀을 인식하고 정진하여 자발적으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도록 한다.

보주는 또한 보살의 持物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때 보주는 비록 보살상의 일부이지만, 造像의 성격을 결정하고 이를 대중에게 제시하는 상징체로 작용하므로 그 의미는 보살상의 전체적인 연관성 속에서 파악되어야 할 당위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보주에 대한 총체적 고찰이 선행되어야만 보주를 지물로 하는 조상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보주와 보주를 지물로 하는 보살상을 분리하여 고찰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두 가지 모두 형식의 전개 양상과 부가적인 역할을 살피는 데 치중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주를 지물로 한 보살상의 성격 규명에 다소 미흡했던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보주를 지물로 한 보살상을 고찰하기 이전에 별도로 보주의 실체를 파악하는 과정을 덧붙임으로써 이 두 가지를 통합해보고자 한다.

한편 보주를 지물로 한 보살상은 크게 執寶珠菩薩像과 捧持寶珠菩薩像으로 나뉜다. 執寶珠菩薩像은 한 손으로 보주를 잡거나 받든 보살상으로, 5세기 중엽부터 주로 중국의 北朝에서 조형되었으며 수많은 조형 예를 남기고 있다. 그런데 이들 상을 시기에 따라 정리해보면, 집보주보살상이 협시보살로 구성된 삼존불의 경우 銘文에 의해 본존이 석가모니불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석가모니와의 관계 속에서 이 도상을 파악해야 할 필연성이 대두되며, 이와 동시에 나머지 협시보살의 지물 또한 점차 연봉오리로 정착되어 가는 현상을 보임에 따라 관음보살과의 밀접한 관계 또한 제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삼존불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석가모니불과 관음보살·집보주보살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한 후, 이들 세 존격이 융합할 수 있었던 매개점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반면 봉지보주보살상은 두 손을 위아래로 하여 보주를 감싼 보살상으로 주로 南朝지역에서 제작된 도상이다. 남조에서 이 형식의 보살상이 제작되던 시기에 북조에서는 보주를 지물로 한 보살상은 주로 집보주 형태로 제작되었고, 捧持한 형식은 阿難이나 迦葉 같은 僧像에서 주로 조형되고 있어 남조와는 사뭇 달랐던 제작 상황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북제 대에 이르면 변화를 보여 북조에서도 봉지보주인으로 된 보살상을 찾아볼 수 있다.

이 형식은 몇 점 안 되는 조상 예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백제의 6세기 후반부터 7세기 전반의 보살상과 일본의 초기 보살상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등 이들 남조와의 밀접한 영향관계를 보여주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당시의 문화적인 교류 상황을 잘 보여주는 도상

으로서 일찍부터 주목을 받아 왔으며, 집보주보살상에 비해 비교적 폭넓게 연구가 이루어진 편이다. 그 결과 바닷길을 통한 불교 및 불교미술의 새로운 전래 경로가 밝혀졌고, 새로운 불상 양식의 유입으로 인한 양식적 변화와 그로 인한 남북조 간의 상호 영향관계가 논의되는 등 현재도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銘文을 통해 관음으로 밝혀진 남조 보살상들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백제와 일본의 봉지보주보살상의 존상명도 관음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런데 근래에 이르러 보주로 알려졌던 남조의 보살상이 받든 지물의 실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새로운 연구 성과들이 발표되면서 봉지보주보살상이 관음을 조형화한 것이라는 학설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¹ 따라서 이들 조상에 대한 연구는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이며, 현재 보주에 관한 연구와 더불어 다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도 동일한 맥락에서 비롯된 것으로, 봉지보주보살상 연구의 선행 단계로서 집보주보살상 형식으로 된 조상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정리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고찰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도상의 성립과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그 결과 이러한 도상의 출현이 대중에게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했던 조형 목적을 밝혀 이후에 시도할 봉지보주보살상의 연구에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II. 寶珠의 유형 분류와 舍利와의 연관성

寶珠는 일반적으로 구슬[珠]을 통칭하는 용어로, 이에 해당하는 산스크리트어 및 팔리어는 maṇi(마니)이다. 그리고 maṇi를 어근으로 하는 단어에 '思惟'라는 뜻을 지닌 Cintā라는 접두어가 붙으면 '생각하는 대로 일체의 바람을 들어주는 구슬'이라는 의미의 Cintā-maṇi(친타마니)가 된다. 이것은 如意寶珠라고 漢譯한다.² 산스크리트어 사전에서는 이 두 용어를 구별해 maṇi는 진주나 보물, Cintā-maṇi는 상상 속의 보물로 파악하고 있다.³

¹ 八木春生, 「中國南北朝時代における摩尼(寶珠)の表現の諸相」, 『佛教藝術』 189호(1990)과 「中國南北朝時代における摩尼(寶珠)の表現の諸相」再論, 『佛教藝術』 203호(1992)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² 이외에도 한역 경전에서는 이 두 용어를 振多摩尼, 震多末尼, 震路末尼, 如意寶, 如意珠, 如意摩尼, 摩尼寶珠, 末尼寶, 無價寶珠 등 여러 유사 단어로 번역하고 있다. 望月信亨, 『望月 佛教大辭典』 5(世界聖典刊行協會, 1973), pp.4132, 4750; E.D.Saunders, *MUDRĀ*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5), p.154.

³ 八木春生, 『雲岡石窟文様論』(法藏館, 2000), p.11.

그런데 이러한 사전적인 의미를 제외하면 마니에 대해 알려진 바는 그다지 많지 않다. 특히 인도의 마니 형태와 도상에 대한 연구가 공백으로 남아 있는 점은 보주의 實體와 형태 파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마니에 대한 연구를 진척시키지 못하는 근본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 불교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인도의 고대 문헌에 대한 연구 결과가 부족하나마 마니에 대한 실마리를 전해 주어, 마니의 실체나 상징성의 파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으로 유입되기 이전의 마니에 대한 이해는 위의 연구 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동시에 마니의 형태로 널리 인정된 서역 지방의 유례를 근거로 인도의 마니를 역추적해 가는 방식이 현재로써는 최선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우선 인도의 고대 문헌에 대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그 안에서 간단하게 마니, 즉 보주가 지니고 있는 성격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인도의 고대 문헌 중에서 *maṇi*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리그베다(*Rg-veda*)이고, 이를 시초로 *maṇi*라는 낱말이 여러 베다 문헌에 빈번하게 나타난다. 리그베다에 사용된 '황금마니'라는 표현으로 미루어 이때 *maṇi*는 금속류를 재료로 사용해 만든 목걸이로 추정된다. 리그베다 이후 아타르바베다(*Atharva-veda*)에서도 *maṇi*는 여전히 목걸이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고는 있지만, 이 문헌에 이르면 단순한 장식에서 벗어나 주술력을 지닌 護符[符籙]로 의미가 확장되면서 쓰임새도 다양해진다.

즉 호부의 기능에서 다양한 질병에 효능을 발휘하는 藥이라는 의미가 파생되어 萬病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수호해 수명을 늘려주는 신비로운 물체로 전개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번 더 의미가 파생되어 敵의 파괴자, 魔術에 대항할 수 있도록 守護神이 내려 주신 강력한 무기,⁴ 부와 번영을 바라는 자가 원하는 대상 등으로 점점 추상화되어 가는 과정을 거쳐,⁵ 최종적으로 '고뇌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을 상징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상이 짧지만 불교 이전의 문헌에서 찾아낸 *maṇi*, 즉 보주의 기능이자 상징성인데, 위에서 열거한 기능들이 불교의 여러 경전에 기술되어 있는 여의보주의 기능과 거의 일치하고 있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또한 고뇌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는 최종적인 결과는 앞에 열거

⁴ 이러한 기능은 마니를 제석천의 무기로 묘사한 경전의 記述과 관련된다. 구마라집이 한역한 『大智度論』 제59권 중에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것은 제석천왕이 가지고 있는 金剛인데 이수라와 싸울 때에 부서진 것이 염부체에 떨어진 것이다"라고 한다(龍樹, 『大智度論』 한글대장경[동국역경원, 1994], p.472).

⁵ 長柄行光, 「*maṇi*について」, 『東洋の思想と宗教』 제3호(早稻田大學 東洋哲學會), pp.2-9.

된 諸기능들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여의보주의 상징성이 불교 자체에서 형성된 게 아니라 인도 고유의 사상 속에서 태동되어 존재하던 것을 불교가 수용했을 가능성도 제기할 수 있다. 또 처음에 마니가 목걸이와 같은 장신구였다는 내용은 'mani'가 金을 포함한 온갖 보석을 지칭한다는 보주의 일반적인 의미와도 호응하고 있어 보주의 근원적인 형태를 추정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약으로서의 기능도 언급되어 보주와 약과의 관련성도 엿볼 수 있다.



도 1 <雲岡石窟 第7窟 主室 天井 中央部 南側 格間 寶珠>, 5세기 말, 彩色壁畫, 운강석굴
(『中國石窟: 雲岡石窟 1』, 도170)

보주는 雲岡石窟 第7窟 主室 天井 中央部 南側 格間에서 보이는 것처럼 서역과 중국의 불교미술 초기부터 단독으로 臺 위에 안치되어, 신앙의 대상으로 간주되는 유례를 많이 남기고 있다^{도1}. 이러한 유례는 보주가 불보살상과 대등한 위치에 있었던 당시의 정황을 말해준다.

또한 보주를 '過去佛의 사리'나 '佛法이 멸할 때 사리가 마니로 변하여 중생을 구한다'고 설명한 『大智度論』의 구절과⁶ 보주가 舍利莊嚴具에서 眞身舍利가 봉안되는 위치에 배치되는 현상은 보주의 사리 대체를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보주와 사리와의 관계는 보주나 사리장엄 연구자라면 한번씩 빠짐없이 언급하고 지나가는 문제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 문제를 독립된 논제로 다룬 논고를 찾아볼 수 없으며 다소 피상적인 논의에 그쳤을 따름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위와 같은 점을 전제로 보주를 형태에 따라 분류하고, 사리장엄구속에서 각각의 유형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살펴 본격적으로 보주와 사리의 관계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⁷

⁶ "과거 오래전 여러 부처님의 사리인데 法이 이미 멸망하게 되자 사리가 변하여 이 보주로 되어서 중생을 이익되게 한다"라고 되어 있다. 龍樹, 앞의 책, p.472. 석가모니 이전의 수많은 과거불뿐만 아니라, 현재불로 간주되는 석가모니도 이미 열반에 든 상태이므로 과거불의 범주로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석가모니의 사리도 보주로 化했다고 논리적으로 논지를 전개할 수 있다.

⁷ 다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문헌자료에 마니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면 인도의 마니 도상을 충



도2 <토욕석굴 슈타인 IV-vii窟 將來壁畫 禪師觀想圖(1)>, 6세기로 추정, 토욕석굴
 (「トゥルファン・トヨク石窟の禪窟壁畫について-
 (上)」, 『佛教藝術』 221호, 도22a)

보주의 첫 번째 유형은 六角 結晶形으로, 키질석굴의 벽화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이 육각 결정형태를 보주로 확정짓게 된 것은 토욕석굴 슈타인 IV-vii窟 禪師觀想圖에 “禪師觀寶珠光……”이라고 墨書로 題記를 덧붙인 예를 발견하면서부터이며, 키질석굴뿐 아니라 서역지방의 여타의 석굴들에서도 이 형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2, 8}. 이 유형의 형태는 실제 입체 보석의 原石인 능면체(rhombohedron)의 외형에서 비롯된 것으로, 각각을 이루는 면의 색깔이 다른 것은 빛의 각도에 따라

반사되는 색의 차이를 충실히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특이한 것은 이 유형의 보주가 지물로 등장하는 예는 보기 어려우며 주로 臺에 안치되어 奉安의 대상으로만 형상화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주로 예리하게 빛을 내뿜는 형태로 표현된다. 이 유형은 조형의 주체자인 장인이나 대중들에게 보주로 인식된 초기 형태로, 서위 대까지 지속적으로 조형되었고 이후 고구려의 광배에까지 영향력을 끼쳤다.

사리장엄구에서 육각 결정형 보주의 형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인도의 카니슈카 대탑 출토 舍利 內容器에서이다. 이 탑에서 출토된 사리장엄구 중 金銅製 舍利容器에는 “육각형으로 된 水晶에 小孔을 뚫고 그 안에 佛舍利를 넣었다”라는 내용의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이를 통해 사리를 직접 매장하지 않고 투명한 육각형 결정으로 가장 안쪽 내용기를 제작한 후 그 안에 사리를 넣어 埋納했던 埋藏방식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육각형으로 된 수정’이라는 문구는 사리용기의 재질과 형태면에서 바로 육각 결정형 보주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므로, 육각 결정형 보주의 형태적 근원이 孔을 뚫어 사리를 넣는 내용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중요한 사실이 밝혀지게 된다. 이러한 예를 통해 사

분히 상정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는 구체적인 형태를 제시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거론했듯이 마니의 형태 분류는 서역을 출발점으로 삼아 검토를 진행하기로 한다. 西域에서 보주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곳은 키질석굴을 비롯한 석굴들이다. 특히 키질석굴은 석가모니의 涅槃圖를 비롯해 벽화 곳곳에 보주를 조형해 놓아 보주의 형태 연구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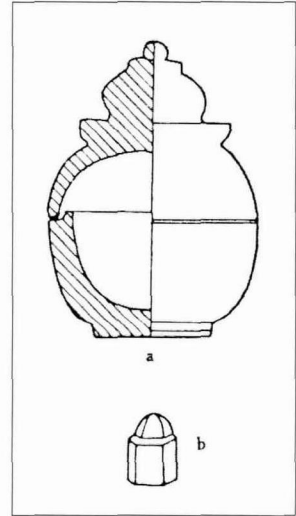
⁸ 宮治昭, 「トゥルファン・トヨク石窟の禪窟壁畫について- (上)」, 『佛教藝術』 221호(毎日新聞社, 1995), p.38.

리를 納入한 육각 결정형 보주가 사리와 동일시될 수 있었고 사리로서 기능할 수 있었던 당시의 조형 원리를 재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리를 納入한 육각 결정형 보주는 살아 있는 생명체로서 키질석굴 벽화에서와 같이 빛을 뿜으며 생동감 있게 날아다닐 수 있었고, 토욕석굴 禪觀窟에서처럼 선관의 대상으로 채택될 수 있었던 것이다.⁹

그 결과 육각으로 된 보주가 단독으로 봉안되었던 경우가 아니라, 키질석굴 第38窟과 69窟의 열반도에서처럼 주로 석가모니가 열반한 장소의 주변에 배치되어 빛을 내뿜으며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 등, 이 유형과 관련된 諸 도상의 조형적 근거가 논리적으로 해명되리라고 생각한다.

현존하는 사리장엄구 중에서 실제로 카니슈카 대탑의 명문에서 언급한 안치 방식대로 사리장엄을 한 예로는 밧티푸물르 출토 사리장엄구를 들 수 있다도3. 도 3은 실제 유물을 보고 그린 圖面인데, 이를 통해 사리를 담았던 가장 안쪽 용기를 녹주석과 수정을 이용해 육각 결정의 형태로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¹⁰ 특히 사리용기의 胴體를 육각으로 한 것은 물론, 뚜껑도 육각으로 다듬고 끝을 뾰족하게 정돈하여 결정의 형태를 온전히 표상해내고자 하였다. 이 유물은 명문으로만 남아 있는 카니슈카 대탑 사리장엄의 埋納 법식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예로, 앞에서 들었던 바와 같이 이 유형의 보주와 사리와의 관계를 증명해주는 유물로서 의의를 지니고 있다.

두 번째 유형은 팔각으로 된 외형의 내부에 十字로 각각 두 줄씩 線을 그은 형태로, 키질석굴 第101窟 主室窟 좌측에 보인다도4. 이 유형은 앞에서 거론한 육각형 능면체의 위아



도 3 <밧티푸물르 塔 第3石函 出土 舍利容器>
a: 水晶容器,
b: 綠柱石容器),
a: 水晶 · b: 綠柱石,
a: 高 7.6×徑 5.4cm ·
b: 全高 1.9cm
(『佛教美術史論考』, 도44)

⁹ 육각 결정형 보주가 빛을 발산하는 형태는 放光과 神異라는 단어로 바꿔 말할 수 있는데, 이는 사리의 특징으로 들 수 있는 대표적인 현상이다. 중국 고대의 사리가 보여주는 이 放光과 神異를 키질석굴의 육각 결정형 보주가 공유하고 있는 측면도 카니슈카 대탑 출토 銘文을 통해 추론한 내용과 상통하고 있으며 육각 결정형 보주와 사리와의 관련성을 재확인시켜 주는 셈이다. 중국의 사리가 보여주는 放光과 神異현상에 관해서는 주경미, 『중국 고대 불사리장엄 연구』(일지사, 2003) pp.74-80 참조. 주경미는 이 두 가지 현상 외에 사리의 治病능력도 언급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의약으로 기능하였던 보주의 기능과 공통하고 있다.

¹⁰ 高田修, 「インドの佛塔と舍利安置法」, 『佛教美術史論考』(중앙공론미술출판, 1969), p.50. 가장 안쪽에 해당하는 육각 결정형 녹주석 용기에 小孔을 뚫어 그 안에 骨片을 담았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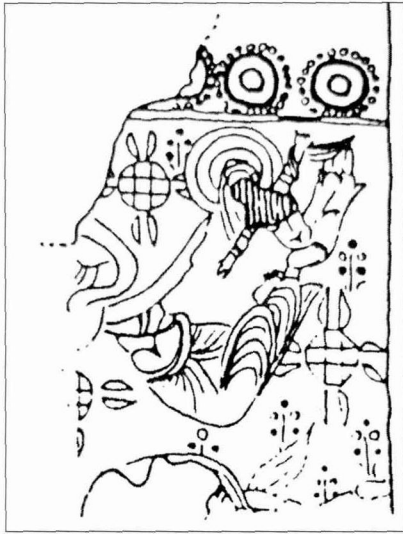
도 4 <키질석굴 第101窟 主室窟頂左>, 5세기 말-6세기 초, 彩色壁畫, 키질석굴 (『中國石窟: キジル石窟 1』, 도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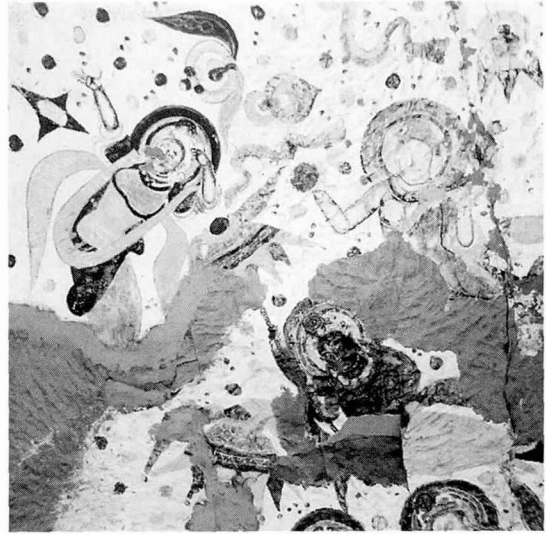
도 5 <쿠포트라석굴 第63窟 主室窟天井左>, 6세기로 추정, 彩色壁畫, 未詳, 쿠포트라석굴

래 뾰족한 부분을 가로로 컷팅할 때 생겨나는 입체를 회화적으로 충실히 묘사한 형태이다. 첫 번째 유형과 마찬가지로 연마된 각 면의 색을 각각 다르게 채색한 것이다. 이때 외형이 이루는 팔각은 원을 제작하기 위한 바로 이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형태이므로, 원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이러한 원리는 서역지역의 벽화에 반복적으로 그려진 '바라문이 여의주를 부처님께 布施하고 道를 얻은 인연' 장면을 통해 증명된다.

이때 소재로 한 설화가 명확하기 때문에 여의주라는 호칭을 분명히 알 수 있고, 반복해서 도해되었기 때문에 양식적 특징도 논할 수 있어서 보주의 형태 변화를 살피는 데 아주 적절한 대상이 된다. 이 장면에 등장하는 보주의 형태는 키질석굴 第101窟 主室窟 좌측에서는 팔각형으로 조형되어 있는데 쿠포트라석굴 第63窟 主室窟 天井 좌측 벽화에서는 붉고 완전한 원형으로 변형되고 있다도5. 게다가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토욕석굴 第42窟 左壁 하단에는 키질석굴 第101窟에서 보이는 팔각형으로 된 보주와 이 팔각형의 외형만 圓으로 변한 보주가 한 장면 안에 동시에 표현되어, 팔각형과 원형의 대체관계를 증명해주는 점은 주목된다도6. 따라서 이 유형의 생성과 변화 과정을 통해, 보주의 육각형 형태에서 팔각형이 導出되고 또 팔각형은 원형과 변형관계에 있음을 확인한 결과, 이 세 가지 유형이 비록 형태는



도 6 <토욕석굴 第42窟 左壁 壁畫 하단>, 6세기로 추정, 彩色壁畫, 토욕석굴 (『トウルフアン・トヨク石窟の禪觀窟壁畫について-(上)』, 『佛教藝術』 221호, 도13)



도 7 <키질석굴 第48窟 後廊窟頂 供養天>, 4세기 말-5세기 초, 彩色壁畫, 키질석굴 (『中國石窟: 키질石窟 1』, 도160)

변별될지라도 '보주'라는 유기적인 틀 안에서 서로를 대체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세 번째 유형인 圓形이다. 이 형태는 서역의 경우 키질석굴 第48窟 涅槃圖, 키질석굴 惡魔窟 小部屋 S 誓願圖, 토욕석굴 등에서 보이고, 중국의 경우 龍門石窟이나 麥積山石窟의 北魏期 造像을 시초로 6세기 전반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현재에까지 이르는 일반화된 보주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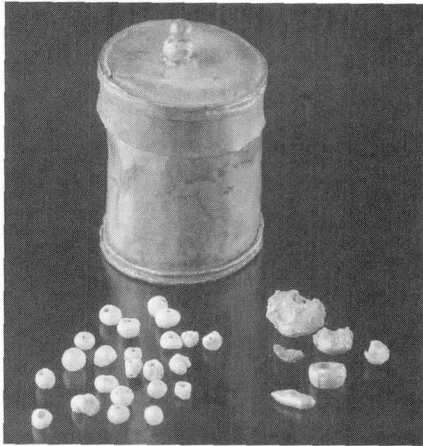
키질석굴 第48窟 열반도에서 보이는 원형 보주는 원으로 테두리 지어 외형을 그리고 그 내부를 채색으로 채웠는데 둥근 球形 보석을 繪畫化한 것이다도7. 원형 보주로 불리는 유형은 거의 이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런데 키질석굴 악마굴 小部屋 S 서원도에서 나타나는 원형 보주는 둥근 원을 그린 뒤 지름 부근에 두 줄의 가로線을 넣어 원의 내부 공간을 二分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두 공간을 다르게 채색하여 둥글게 테두리만 지은 것과 차별화하였다도8. 그 결과 전자인 키질석굴 第48窟의 보주와 사뭇 다른 형태로 느껴진다.

이 형태는 서역 지방의 여러 석굴뿐만 아니라 남조의 봉지보주보살상의 지물에도 등장하고 있다. 八木春生은 이러한 두 형태 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근거로 후자를 보주로 볼 수 없다



도 8 <黃道 十二宮·誓願圖
斷片>, 6세기,
彩色壁畫,
129.5×169.5cm,
키질석굴 惡魔窟小部屋
S (『シルクロード大美術
展』, 도81)



도 9 <시르잡 王宮址 出土 舍利容器>, 1세기, 片
岩, 高 10.5×徑 8.5cm,
탁실라 考古博物館 (『シルクロード·佛教
美術傳來の道』, 도34)

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견해를 따를 경우 후자도 사리함의 형태를 한 지물과 동일하게 간주됨으로써 보주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결론을 낳게 되고, 결론적으로 남조의 보살상과 보주의 관련성을 부인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¹¹

그러나 이 형태는 원형과의 친연성 속에서 파악될 수 있는 것으로, 투명하고 둥근 구형 물체에 중앙을 관통하는 관을 뚫었을 때, 반사광에 따라 굴절되어 색이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사실적으로 회화화한 것일 따름이다. 실제로 수정과 같이 투명한 재질로 된 구형 물체에 지름 선을 따라 관을 뚫어주면 착시 현상이 일어나서, 시각적으로 원형에 두 줄의 선이 그어진 것처럼 인식된다. 따라서 이 두 형태는 후자가 전자를 조금 변형한

것일 뿐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형태의 정체에 대한 별도의 논리적인 해명 없이 후자를 보주의 범주에서 제외한 八木春生の 견해는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세 번째 유형을 실제 유물에서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사리장엄구에서 원형 보주의 형태를 보이는 것은 주로 供養具로 사용된 각종 구슬들을 들 수 있는데, 본래 사리를 장엄하기 위해 사리장엄구에 납입된 것이다⁹. 예를 들어 시르잡 왕궁지 출토 사리용기에서는 사리로 보이는 물체와 함께 관이 뚫린 원형 보주가 다량으로 발견되었는데, 이 유

11 八木春生, 「中國南北朝時代における摩尼(寶珠)の表現の諸相」再論, pp.90-92 및 pp.112-119.



도 10 <소나리 第二塔 出土 石製蓮蕾形 舍利容器>, 기원전 2세기경, 인도, 石製, 총고 5.4×胴徑 4.25cm, 빅토리아 앤 앨버트 뮤지엄 (『佛舍利と寶珠』, p.15, 도11)



도 11 <常州 南郊 戚家村 南朝墓 出土 摩尼寶珠 文樣>, 南朝 末, 江蘇省 常州 (『中國南北朝時代における摩尼(寶珠)の表現の諸相』再論, 『佛教藝術』 203호, 도39)

물의 경우 사리와 공양구를 구분했다고 생각되므로 이때 원형 보주는 공양구로 보인다.

그렇지만 인도의 根本八塔 중 하나로 추정되는 바이샬리 탑에서는 사리장엄구인 둥근 합 안에서 점토와 유리구슬, 조개와 금동박편, 동전 등이 발견되었을 뿐 사리로 추정되는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이를 비롯해 다른 탑들의 사리장엄구에서도 원형 보주만 사리 내용기에 안치되고 실제로 사리가 발견되지 않은 유물이 많기 때문에 보주의 사리 대체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¹² 마찬가지로 중국의 경우도 남북조시대부터 唐代 전기, 혹은 그 이후에 이르기까지 사리로 여겨지는 것 중 身舍利로 보이는 예는 거의 없고 오히려 수정이나 준 보석류로 된 광물질인 경우가 더 많았다는 연구 결과는¹³ 원형 보주가 아예 사리 자체를 대체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어 사리와와의 관계 속에서 보주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¹⁴

¹² 주경미, 앞의 책, pp.31-37에 바이샬리 탑을 비롯한 인도 탑들의 사리장엄구가 자세하게 다루어져 있다. 한편 소나리 第二塔 出土 石製蓮蕾形 舍利容器의 연봉오리와 같은 형태는 도10 중국 南朝의 墓에 조형된 보주 문양이나 도11 중국 북조에서 보살의 지물로 보이는 나타나는 연봉오리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흡사하여 형태적인 친연성도 짐작할 수 있다.

¹³ 주경미, 위의 책, p.224.

¹⁴ 이들 구슬들, 즉 원형 보주가 사리와 관계를 갖게 된 정황은 다음과 같이 추정해 볼 수 있다. 사리는 석가모니의

이들 구슬도 마찬가지로 관의 유무에 따라 관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관이 없는 원형에 비해 관이 있는 형태가 주로 공양구로 납입된 것 같다.

요컨대 원형 보주의 형태는 사리장엄구로 현전하는 유물과의 형태 비교를 통해, 앞에서 다루었던 육각 결정형처럼 간접적으로 보주의 내부에 사리를 내포한 형태를 형상화한 것이 아니라 사리 자체를 직접 표방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III. 中國 執寶珠菩薩像의 圖像 分析

1. 佛敎 經典에 나타난 寶珠·釋迦牟尼佛·觀音菩薩의 相關關係

앞 장에서는 보주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 형태를 사리장엄구 속에서 찾아봄으로써 보주와 사리와의 관계를 밝혀 보았다. 그러자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사리와의 직·간접적인 관련성이 드러나 보주의 실체와 상징성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가능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단독으로 조형된 보주뿐 아니라 지물로 조형된 보주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보주가 사리를 상징해 '깨달음의 결정체'로서 작용한다는 결론에 의거하여 보주를 지물로 한 보살상을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새롭게 제기되었다.¹⁵

따라서 이 장에서는 불교경전에서 보주를 언급한 구절들을 찾아 검토한 후 종합적으로

열반 후 그의 유해를 다비해 얻은 것으로, 중요한 신앙의 대상이 되어 불교의 전파와 함께 각국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사리는 불법을 증명하는 매체로서 불상과 동등한 비중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 결과 구법승들을 포함한 많은 이들이 간구하기에 이르렀고 불법이 전해진 곳이라면 석가모니의 사리로 알려진 유물이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현존하는 유물 중 인도의 초기 탑으로 여겨지는 根本八塔에 안치된 사리만이 석가모니의 眞身舍利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탑도 기원전 3세기경에 아쇼카왕이 7곳에서 佛舍利를 꺼내 팔만 사천 개의 탑을 건립하는 대사가건이 발생하면서, 바로 이 때 이미 한정된 수량이었던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대신해 대체 물질이 불탑의 사리로서 사리 신앙에 介在되기 시작했을 가능성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즉 팔만 사천 개의 탑에 각각 사리 1과씩을 담았다는 당시의 기록을 보면, 과장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했을 사리의 수요나 그로 인한 보주의 사리 대체가 충분히 예상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후 전개되는 過去佛과 千佛 개념의 등장이나 불교의 전파로 인해 급격히 증가한 사리의 수요 등은 유사한 형태가 가능했던 보주로 사리를 대체시키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생각된다. 이후 중국을 비롯한 각국의 사리장엄구에서 보주형 사리가 출현하는 현상은 이와 같은 상황과 보주의 사리 대체를 증명하고 있다.

¹⁵ 보주는 과거불을 포함한 석가모니의 사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깨달음의 결정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분석하여 경전에 언급된 보주의 성격을 정의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주와 보살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집보주보살상의 도상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¹⁶

불교경전에 등장하는 보주의 의미를 몇 가지로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값비싸고 진귀한 보물로, 이것이 경전에서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보주의 의미이다. 이 경우 보주는 七寶로 알려진 금·은·유리·산호·적주·차거·마노 안에 포함되는 일부로 사용되기도 하였고, 혹은 이를 통칭하는 용어로 쓰이기도 하였다.

다음은 보주를 특정한 사물에 비유함으로써 단순한 보석이라는 의미를 넘어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한 경우이다.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마갈이라는 큰 고기 뇌수에서 나온 것’이나 ‘체석천이 가진 金剛’,¹⁷ ‘아주 오랜 과거의 모든 부처님 사리’, ‘용의 뇌 안에 있는 것’¹⁸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비현실적인 상황을 강조하기 위한 설화적 장치로서, 보주에 신비로운 분위기를 부여하는 동시에 회소성을 부각시켜 보주 획득의 어려움을 제시하기 위한 비유일 따름이다. 이 밖에 “금시조가 죽고 남긴 심장을 난타 용왕이 가져다 明珠를 삼고 전륜성왕이 얻어다 여의주를 삼았다”라는 구절도 앞의 맥락의 연장으로 보인다.¹⁹

그런데 보주를 언급한 경전 구절 중에서 앞의 記述들과 성격이 전혀 다르면서도 공통적인 요소들로 내용을 구성하여, 독립된 카테고리 형성하는 부류가 있다. 보주 및 용과의 관련 속에서 전개되는 석가모니의 本生談으로, 각각의 내용은 요소들이 추가·생략되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줄거리는 일맥상통하고 있다. 또 이 본생담의 구성요소를 차용하여 새로운 설화가 파생·전개되기도 한다. 이렇게 파생된 요소들은 또다시 구전되면서 보주에 신비성을 추가하여 앞서 언급한 ‘용의 뇌 안에 있는 것’에 비유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석가모니의 본생담이 이들 내용의 근원적인 모티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일차적으로 이 유형에 해당하는 설화들을 대상으로 공통된 중심요소들을 추출해보겠다.

우선 보편적으로 알려진 용과 보주와의 관계는 우선 보주의 보관처와 보관자를 언급하

¹⁶ 다만 불교의 거의 모든 경전에서 보주라는 단어가 보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보주를 언급한 경전이 많고, 또 본 논문에서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집보주보살상이 주로 6세기에서 7세기라는 한정적인 시기에 걸쳐 제작되는 도상이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검토 대상을 수 대까지 한역된 경전들로 제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¹⁷ 龍樹, 『大智度論』 제59권(승민·보창 編, 『經律異相』 1권, 한글대장경[동국역경원, 2002], p.73에서 재인용).

¹⁸ 龍樹, 위의 책(『經律異相』 2권, p.73에서 재인용).

¹⁹ 『觀佛三昧經』 제1권(『經律異相』 1권, p.563에서 재인용). 이 경전에서는 보주를 용왕 및 전륜성왕과 연관시켰다. 이것이 더 진전되어 『기세경』에 이르면 전륜성왕과 보주의 관계를 명시하면서 보주의 구체적인 형태와 색깔을 묘사하기도 하였다.

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華嚴經』 제30권의

큰 바다에는 네 가지 보주가 있는데, 온갖 보배는 모두가 이로부터 나온다. 만약 네 가지 보주가 없으면 온갖 보물들은 점차로 다 없어지게 된다. 여러 작은 龍神들은 볼 수 없고 娑伽羅龍王만이 은밀하게 깊은 광 속에 넣어 둔다……²⁰

라는 구절에서 보이듯이 보주의 보관처로는 ‘큰 바다’를, 보관자로는 ‘娑伽羅龍王’을 설정하고 있다. 여기서 언급된 특정한 고유명사는 각 경전마다 차이를 보이기도 하지만, ‘龍王’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불교경전에서 보주는 주로 바다와 연관되고 보관자도 용왕으로 지정됨에 따라 물과 용을 전제로 한 존재로 성립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²¹ 이렇게 관련되기 시작한 용과 보주는 석가모니의 본생담에 도입되어 설화 속에서 본격적으로 신비로운 공간을 연출하고 다양한 사건을 불러일으키며 설화를 흥미롭게 전개시키는 역할을 한다.²² 그리고 이러한 정황적 요소는 결과적으로 보주에 신비감을 더해주는 장치인 동시에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 찬 보주 획득의 과정을 암시한다.

보주와 바다의 연관성은 法顯의 기록에서 재확인된다. 법현은 『法顯傳』에서 당시 사자국, 현재의 스리랑카를 보주의 산출지로 지목하고, 그곳의 스님들이 보주를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서술해 놓았다. 이에 따르면 보주를 바다와 연관시킨 이들 경전 구절이 당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구전으로 널리 회자되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²³ 그런데

²⁰ 『華嚴經』 제30권(『經律異相』 1권, p.73에서 재인용).

²¹ 심지어 『觀無量壽經』에서는 마니보주에서 물이 나온다고 설하기도 한다. 宮治昭, 「トウルファン・トヨク石窟の禪觀窟壁畫について-(中)」, 『佛教藝術』 223호(毎日新聞社, 1996), p.17.

²² 이렇게 흥미로운 요소들은 그 특성상 설화가 과급되는 데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²³ 『법현전』 제5장 獅子國 條에는 “여기서 상인의 큰 배를 타고 바다에 떠서 서남으로 향하였다. 초겨울의 信風을 얻어 주야 十四일만에 사자국에 이르렀다……이 나라는 본래 섬 위에 있는데 그 섬은 동서가 오십유연·남북이 삼십 유연이나 된다. 좌우의 작은 섬은 백여 개나 되며……이들은 모두 큰 섬에 統屬되며 많은 珍寶와 珠璣를 산출한다. 그 중에는 摩尼珠를 산출하는 섬도 있는데 사방이 약 십리 가량 된다……이 나라에는 본래 사람들이 살지 않아 오직 귀신과 용만이 살면서 여러 나라의 상인들과 교역을 하고 있었다. 거래할 때 귀신은 스스로 몸을 나타내지 않고 다만 값을 평가하여 보물을 내어놓는다. 상인들은 곧 그 가격에 따라 값을 치루고 물건을 가져갈 뿐이다. 여기에 상인들이 내왕하였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사람들은 이곳이 즐거운 곳이라는 말을 듣고 모두 찾아온다……부처님께서는 이 나라에 오셔서 악령을 제도하시고자 신족력으로써 한쪽 발은 왕성의 북쪽을 밟고 다른 발로는 산꼭대기를 밟으셨다고 하는데……왕은 성 북쪽의 발자국 위에 큰 탑을 세웠는데……또 하나의 불전을 세워……그 안에는 높이 二丈 정도 되는 하나의 靑玉像이 있다……이 玉像의 오른쪽 손바닥 안에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한 보배 구슬이 있다……스님들의 창고에는 많은 보배와 값을 매길 수 없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법현의 記述이 실제 고대의 무역 경로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이며,²⁴ 실제 유물의 교역 상황을 통해 기록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 결과 다소 비사실적인 측면을 감안하면 위의 설화들과 일치하고 있는 보주의 產地나 용을 보관자로 指名한 법현의 기술은 역으로 당시의 정황을 논증해줄 수 있는 자료로서 객관성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보주가 바다와 인접한 곳에서 산출되어 마닷길을 통해 전래되었을 가능성도 도외시할 수 없게 된다.

이제 보주와 연관된 석가모니 본생담 중 대표적인 것으로 『大智度論』 卷12 「能施王子가 바다에 들어가 보배를 캔 인연」을 선택하여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다. 다소 길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畵文을 요약 소개한다.

석가모니불의 본래 몸은 大醫王이었다.²⁵ 온갖 병을 치료하면서 명예와 이익을 구하지 않은

는 값진 摩尼珠가 있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필자의 임의에 따른 강조) 法顯, 李載昌 역, 『法顯傳』 현대 불교신서 32(동국대학교부설 역경원, 1980), pp.134-137.

²⁴ 이러한 사실은 동서무역에서 주된 역할을 수행했던 상인들이 로마의 산물을 중국으로 가져가기 전에 반드시 경유했던 곳으로 인도를 들고 있는 점으로 증명된다. 특히 보석 중 하나인 琉璃는 기원전 2세기경부터 5-6세기에 이르기까지 수입이 지속되었다고 생각되는데, 당시 매우 귀하게 여겨졌던 유리는 인도를 통해 중국에 유입되어 漢代부터 玉晶, 水精이라는 별칭으로 불리우면서 진귀한 사치품과 장식품으로 각광을 받았으며, 한국과 일본으로 도입되기에 이른다. 무함마드 간수, 『新羅·西域交流史』(단국대학교출판부, 1994), pp.50-53.

²⁵ 초기 불교미술에 등장하는 지물로 藥을 상징하는 것에는 약함과 둥근 보주 형태를 한 것이 있다. 본 논문에서 언급한 것은 둥근 보주 형태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인도의 고대 문헌을 통해 마니의 유래를 살펴 본 결과 마니는 고대 인도의 醫藥과도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따라서 보주 형태로 조형된 藥도 원래 마니의 고유한 성격으로부터 비롯되었을 것이다. 이 점은 불교가 東傳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神異들과 잘 부합된다. 고대 동양의 의학은 중국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나갔으며, 중국 고대 의학이 경험을 통한 수목·약초류를 이용한 치유법에 핵심을 둔다고 간주되지만, 東西洋醫學史에서는 서양 의학의 시초인 그리스와 중국 의학의 태동기에 인도의학이 미친 막대한 영향을 인정하고 있다. 즉 인도의학은 알렉산더의 동방 원정 이전에 이미 그리스 주위에 전해져서 히포크라테스 의학에 인도의 약물이 취급되고 있었으며, 중국에도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인도의학이 전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唐代에 선진적이었던 인도의학의 일례를 들어보면 간다라지방인 탁실라에는 의학 학교도 있었다고 하며, 석가모니를 모시고 巡歷했다고 전해지는 인도의 名醫 지바카는 이곳에서 의학을 익혔다고 한다. 외과수술을 실제로 행하였던 지바카는 불교경전에서 석가모니와 함께 기적적인 치유를 행하였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석가모니로부터 부여받은 치유권을 행사하여 민중의 고뇌를 치유한다는 의미지만, 실제로도 지바카의 치료법은 사면이나 마법주술사들이 행했던 원시 정신요법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술이었다고 생각되며, 동시에 이를 통해 고대 인도의 외과학이 도달한 성과를 가능해볼 수 있다. 더구나 이러한 사실은 인도의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Ayur-Veda)가 성립된 시기가 기원전 5세기나 혹은 그 이전으로 올라간다는 사실과도 부합되어 이들 논의에 객관성을 부여해준다. 가노우 요시미즈, 동의과학연구소 역, 『몸으로 본 중국사상』, 동과연 학술총서 1(소나무, 1999), pp.18-22. 따라서 실제로 의술을 행하여 병을 치료하였던 선진적인 의술이 발달한 인도로부터 온 승려가 불교를 전파하는 데 醫術을 한 방편으로 사용하였을 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은 중생들을 가엾이 여겼기 때문인데, 병자가 너무 많았으므로 힘을 두루 썼으나 두루 다 구제하지 못하였으니, 일체를 염려하면서도 마음대로 되지 못함을 괴로워하다가 죽어서 忉利天 상에 가 나서 생각하였다……그리고는 곧 스스로 방편을 써서 자기 몸을 없애서 그 하늘의 수명을 버리고 婆迦陀龍王의 궁중에 가 태어나서 용의 태자가 되었다. 그 몸이 장대하여 부모가 애지중지하였는데 스스로 죽고자 하여 금시조왕에게 나아가니, 그 새는 바로 이 용의 태자를 붙잡아다 사마리나무 위에서 잡아먹어버렸다. 부모가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괴로워하였는데, 용의 태자는 이미 죽어서 閻浮提에 나서 대국의 왕의 태자가 되었으며, 이름은 능시였다……염부제 사람들이 가난하여 몹시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보시하고 싶어 하였으나 재물이 부족한지라 울면서 여러 사람에게 말하였다. “어떠한 방편을 쓰면 일체로 하여금 재물을 만족되게 하겠습니까?” 여러 경험 많은 이들이 말하였다. “……여의보주가 있어서 만약 이 보주를 얻기만 하면 마음에서 바라는 바대로 모두를 반드시 얻게 된다 합니다” 하므로 큰 바다에 들어가 용왕의 머리 위의 여의보주를 구하려 하자……이때, 오백의 장사꾼이 모두 따라가려 하므로 그 가는 날짜를 알리자……너의 아버님의 머리 위에 이 보주가 있거니와……“저는 이것 때문에 멀리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왔으며, 염부제 사람들의 박복과 가난을 위해서입니다. 여의보주로서 그들의 원하는 바를 구제하고 그런 뒤에 불도 인연으로써 그들을 교화하고자 합니다.” 용왕은 구슬을 주면서……보살은 이때 스스로 서원을 세웠다. “만약 내가 장차 부처님 도를 이루어 일체를 제도하게 된다면 보주는 내가 원하는 대로 온갖 보물을 내서 사람이 구하는 대로 모두를 다 갖추게 하소서.” 이때 음산한 구름이 널리 퍼지면서 갖가지 보물과 의복·음식·침구·탕약 등을 비내리어 사람들의 구하는 바가 모두 다 갖추어졌으며, 그가 수명을 다하기까지 언제나 그러하며 끊어지지 않았다……²⁶

이 설화처럼 보주·용과의 연관성 속에서 전개되는 석가모니의 본생담은 보주 관련 경

일이며, 오히려 낯선 종교를 전교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효과를 입증해줄 수 있는 의술이 경전이나 다른 무엇보다도 異蹟을 일으키기에 적합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의 『三國史記』나 『三國遺事』의 기록을 통해서도 입증된다. 나무와 약초로 만들어진 자연의약 마니는 실제로 중국과 한국에도 전해져 들어왔을 것으로, 마니는 구슬이면서도 동시에 藥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삼국시대 二曲佛立像들의 지물과 본존의 관계를 파악해볼 수도 있다.

²⁶ 龍樹, 앞의 책, 제12권(승민·보창 編, 『經律異相』 2권, 한글대장경(동국역경원, 2002), pp.177-181에서 재인용)(필자의 임의에 따른 강조).

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 ‘能施王子가 바다에 들어가 보배를 캔 인연’, ‘善友가 보시하기를 좋아하여 구슬을 구하였다가 눈을 잃었으나 도로 광명을 찾다’,²⁷ ‘大施가 구슬을 구하여 海神에게 항복을 받고 가난한 이를 구제하다’,²⁸ ‘바다에 들어가 구슬을 캐 어다 가난한 이를 구제하다’,²⁹ ‘바다에 앉아서 商人을 구제하다’³⁰ 등은 모두 대동소이한 내용을 근간으로 하고 설화의 세부요소만 달리한 것이므로 하나의 유형으로 묶을 수 있다.³¹ 이 설화들은 위에서 언급한 핵심이 되는 몇몇 요소를 중심으로 각각 여러 갈래로 파생되어 나가면서 윤색된 것으로 보인다.

이 유형에 속하는 본생담들을 분석해보면 특징적인 핵심요소를 몇 가지 뽑아낼 수 있다. 첫째, 능시대자 본생담의 경우 석가모니를 용의 태자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용과 관련시켰다. 둘째, 보주를 찾아 나선 주체는 석가모니의 前生 보살로, 염부제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여러 번 나고 죽기를 반복하면서 布施를 통해 功德을 쌓은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³² 셋째, 그가 상인들과 배를 타고 온갖 역경을 헤치며 용궁으로 보주를 구하러 가는 과정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이 旅路는 通過儀禮의 성격을 지닌 求道の 과정으로 간주할 수 있다. 온갖 역경을 극복해 낸 결과물은 ‘如意寶珠’로 명시해 놓았다.³³ 넷째, 보살의 誓願에서 드러난 보주 획득의 목적은 ‘온갖 고통에서 일체중생을 救濟하기 위함’인데, 이 유형에 속하는 설화

²⁷ 위의 과정은 ‘善友가 보시하기를 좋아하여 구슬을 구하였다가 눈을 잃었으나 도로 광명을 찾다’條에서 내용을 더욱 첨가하여 반복하고 있다. 『報恩經』 제4권, 『賢愚經』 제2권, 『生經』(『經律異相』 2권, pp.181-194에서 재인용).

²⁸ 다른 설화와 비교해 이 설화가 갖고 있는 특징은 능시대자를 포함해 위에서 언급한 설화들은 통과례에 해당하는 고난의 과정이 바다 속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반면, ‘大施가 구슬을 구하여 海神에게 항복을 받고 가난한 이를 구제하다’ 설화의 경우 산 속으로 바뀌고, 海神이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는 상대로 등장하는 차이를 보인다. 『度無極集』 제1권, 『賢愚經』에도 나온다. 『經律異相』 1권, pp.213-216에서 재인용.

²⁹ 이 설화는 능시대자 설화와 대시대자의 줄거리를 섞어 놓은 것이다. 『出生經』 제1권(『經律異相』 1권, pp.218-219에서 재인용).

³⁰ 『殺身濟賈人經』과 『度無極集』에서 나온다(『經律異相』 1권, pp.219-220에서 재인용).

³¹ ‘沙門이 바다에 들어가 龍王의 청으로 공양을 받고 마니주를 얻다’는 위와 동일한 내용인데 주체만 사문으로 대체한 것이다. 『譬喻經』 제9권에 나온다(『經律異相』 1권, pp.473-474에서 재인용). 그 밖에 ‘바라문이 여의주를 석가모니 부처님께 보시하고 도를 얻은 인연’이 있다. 이 일화에서 눈에 띄는 것은 여의주의 기능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의 본생담에서 언급된 바를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³² 심지어 그의 이름도 布施와 관련되어 있다.

³³ ‘大薩陀婆가 바다를 건너다 배가 부서지므로, 자기 몸을 죽여서 무리를 구제하다’ 설화는 오백의 상인이 바닷길에서 海難을 당하자 자신의 몸을 바쳐 이들을 구해내는 이야기로 이것은 능시대자류 본생담의 일부가 구전설화의 성격상 내용을 첨가하며 자유로이 전개되어 나갔음을 보여준다. 『大智度論』 제4권에 나온다(『經律異相』 1권, pp.217-218에서 재인용).

라면 어느 본생담이든 예외 없이 서술되어 있다. 이는 이 본생담의 절정이자 핵심이다.

이 '온갖 고통에서 일체중생을 구제한다'는 표현은 보살이 보주를 획득하고자 하는 목표이자 동시에 보주가 지닌 기능과 상징성이다. 그리고 능시대자류 본생담에서는 반드시 다루어지고 있지만 반면 다른 본생담이나 여타의 경전에서는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다만 '중생의 소리를 듣고 중생이 원하는 바를 들어 준다'라든지 '危難에 처한 일체중생을 구제한다'는 문구로 상징되는 관음보살의 성격과는 표현적인 차이만을 보일 뿐 내용은 일치하고 있어, 보주를 매개체로 삼는다면 석가모니의 전생 보살인 능시대자와 관음보살을 연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兩者의 성격적인 유사성은 앞에서 분석한 능시대자류 본생담의 특징과 『法華經』 「觀世音菩薩普門品」에 서술된 諸難救濟 중 일부와 내용적으로 유사성을 보이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요컨대 능시대자류 본생담에 의하면 능시대자와 석가모니불은 前生과 現生의 상관관계에 있는 존재로서 일체화가 가능하다. 이때 보주를 구하기 위한 역경과 고난은 正覺을 향한 석가모니의 求道 여정에 비유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결과물인 보주와 사리도 비유관계 속에서 밀접하게 상관되어 있다. 한편 능시대자와 관음보살은 '온갖 고통에서 일체중생을 구제한다'는 동일한 내용을 서원한 존재로서 서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 이 두 보살의 서원 내용은 두 보살은 물론이고 보주가 상징하는 내용과도 정확하게 부합된다. 따라서 이 둘의 일체화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된 서원과 그것을 실현시켜 주는 매개체로 보주가 설정되어 두 보살을 하나로 묶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고통받는 '일체중생에 대한 석가모니의 자비로운 마음'이 능시대자라는 보살의 형태로 가시화되어, 본래 '일체중생에 대한 자비심'을 상징하는 존격인 관음보살과 결합되어 가는 현상을 반영한 결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보주를 매개로 한 석가모니불·석가모니의 전생 보살·관음보살의 會通은 석가모니와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관음보살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고대 관음보살의 성격 규명에 실마리를 제시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2. 能施太子類 本生談 造形 例의 現況

중국에서 보주와 관련된 능시대자류 본생담이 불교 도입 초기에 한역된 佛傳들에 등장하고, 이후에도 여러 경전에 꾸준히 각색되어 수록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이 유형의 본생담이 대중적으로 폭넓게 수용되었을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들 본생담이 불교미술의 소재로 채택되어 조형되었을 가능성도 예측할 수 있다.³⁴ 따라서 이 장에서는 미흡하게나마 능시대자류 본생담에 근거를 두고 제작되었다고 생각되는 작품 예를 찾아 지역적인 분포도와 제작 시기를 분석함으로써 초기의 제작 상황을 다루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서역의 석굴과 중국의 초기 석굴들에는 석가모니의 〈本生圖〉·〈因緣說話圖〉·〈佛傳圖〉를 그린 벽화가 많은데, 그 중에서 〈本生圖〉를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석굴로는 서역의 키질석굴과 중국의 돈황석굴을 들 수 있다.

키질석굴의 경우 가로가 긴 벽에 여러 줄의 대각선을 그어 능형 구획을 만들고 그 안에 본생도를 비롯한 불교회화를 반복해 그렸다. 특히 본생도의 경우 여러 가지 본생담을 소재로 선택하여 그렸는데, 그 안에서 ‘大施가 구슬을 구하여 海神에게 항복을 받고 가난한 이를 구제하다’ 설화를 발견할 수 있다.³⁵ 이 설화는 第17窟 窟頂 왼쪽, 第38窟 왼쪽 側壁, 第69窟 왼쪽 側壁에 그려져 있으며, 7세기로 추정되는 第186窟에도 반복되어 있다. 그 밖에 善友가 보시하기를 좋아하여 구슬을 구하였다가 눈을 잃었으나 도로 광명을 찾다라는 설화가 第178窟 오른쪽 側壁의 능형 구획 안에, ‘바다에 앉아서 商人을 구제하다’라는 설화는 第114窟 窟頂 왼쪽 능형 구획 안에 그려져 있다.³⁶ 〈표 1〉에 따르면 키질석굴에서는 능시대자류 본생담 중에서 3종류를 소재로 선택했지만, 조형 횟수로 판단하면 ‘大施가 구슬을 구하여 海神에게 항복을 받고 가난한 이를 구제하다’ 설화를 가장 선호했던 것 같다.³⁷

그러나 본생담의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시비왕 본생담이나 마하살타 본생담 등에 비해

³⁴ 전생의 보살, 즉 석가모니의 본생담은 너무나 넓게 퍼졌기 때문에 신앙심이 깊은 대중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심지어는 석가모니가 실천했던 나이란자나 강변에서의 6년 고행보다 시비왕의 보시를 더 좋아했다고 전해진다. 본생담에 대한 열광은 기원전 2세기 중엽에 그 정점에 도달했고 바로 이 시기에 바르후트를 필두로 한 인도의 탐에서 부조로 조형되었다. 그리고 이후 몇 세기 동안 본생담을 소재로 조형화하는 것은 계속되었지만 산치대 탐에 부조된 본생담의 목록이 6개에 불과할 정도로 수량이 감소되었다. 한편 높이 평가되어 잘 알려진 본생담의 경우 시비왕본생을 비롯해 六牙象本生, 太子本生, 燃燈佛授記本生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서역의 키질 석굴 벽화에서 다루어진 주제들의 숫자에 훨씬 못 미친다고 한다. 에띠엔 라모뜨, 호진 역, 『인도불교사 2』, (시공사, 2006), pp.473-477. 그런데 열거된 이들 몇몇 본생담 중에서 능시대자류 본생담은 찾아 볼 수 없으며, 바르후트나 산치를 비롯해 아잔타석굴 등에 그려진 벽화에서도 조형 예를 발견하기 힘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시기가 올라가는 보주 관련 造像의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과 더불어 보주 관련 연구의 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한 이후의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³⁵ 능시대자류 본생담 중에서는 이 설화가 가장 많이 그려졌다.

³⁶ 馬世長, 「キジル石窟中心柱窟の主室窟頂と後室の壁畫」, 『中國石窟: キジル石窟』(平凡社, 1983), pp.177-199.

³⁷ 이 본생도에 그려진 바다는 바다라기보다 강처럼 그려졌다.

표 1 키질석굴 벽화에 그려진 석가모니 본생담 목록

	17굴 굴정	38굴 좌 측벽	114굴 굴정 왼쪽	178굴 우 측벽	69굴 좌 측벽	186굴
大(普)施가 구슬을 구하여 海神에게 항복을 받고 가난 한 이를 구제하다		○	○			○
'바다에 앉아서 商人을 구제하다'		○				
善友가 보시하기를 좋아하여 구슬을 구하였다가 눈을 잃었으나 도로 광명을 찾다			○			



도 12 <키질석굴 第17窟 窟頂左⑧ 大施太子本生>, 4세기 말-5세기 초, 彩色壁畫, 키질석굴 (『中國石窟: キジル石窟 1』, 221)

그다지 비중이 높지 않은 점을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또한 註28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장 빈번하게 그려진 대시대자 본생담이 여타의 능시대자류 본생담과 달리 설화적 배경이 산속으로 바뀌어 성격이 크게 변화된 점이나 第178窟 벽화처럼 선우대자 본생담 조형시 바다 표현에 미숙했던 점을 감안하면 서역이라는 지역적인 특성이 이들 본생담을 소재로 한 작품 제작에 크게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상정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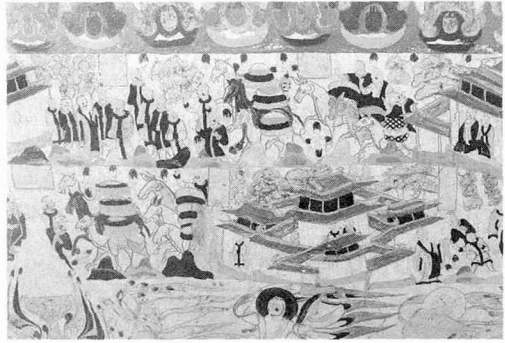
돈황석굴의 경우는 가장 이른 시기인 北凉代부터 석가모니의 본생담을 소재로 한 벽화를 그렸지만, 능시대자류 본생담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北周期에 제작된 第296窟의 窟頂에 東·南·西의 다섯 부분에 걸쳐 '善友가 보시하기를 좋아하여 구슬을 구하였다가 눈을 잃었으나 도로 광명을 찾다' 설화가 그려진

것이 유일하며, 이 설화의 제작에 할당된 공간을 상·하 두 단으로 나누어 줄거리를 전개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도¹³.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초기 벽화에서는 보이지 않던 소재가 북주 대에 이르러 그려졌다는 점이다. 그뿐만 아니라 본래 설화에서는 주인공이 오백상인과 배를 타고 가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벽화에서는 낙타와 말을 이끌고 가는 모습으로 표현된 점이라든지 설화의 공간적 배경이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육지로 표현하여 설화의 내용을 임의적으로 변용한 점도 주목된다. 또한 이 본생담은 이때 벽화에 단 한번 등장한 이후 이 석굴에서 그려지지 않다가 唐代에 이르러 『報恩經』의 변상도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점도 매우 특이하다.³⁸

운강과 용문석굴에서는 본생담을 부조로 새겼는데, 주된 테마는 摩訶薩埵·尸毗王·須大拏太子 등의 본생담뿐 능시대자류 본생담은 발견되지 않는다.³⁹

상세한 정황이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능시대자류 본생담은 서역과 중국의 초기 석굴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여러 경전을 통해 설화가 유포되었다고 할지라도 주로 바다와 관련되어 있는 이들 본생담의 특성상 키질이나 돈황석굴과 같이 지리적으로 바다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소재로 채택되기에 제한적이었거나 혹은 능시대자 본생담류가 주로 바닷길을 통해 전파되었을 가능성으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능시대자류 본생담이 서역과 중국의 여러 석굴들, 즉 불교미술의 전래 초기에 조형화된 예는 본생담을 주로 도해했다고 알려진 석굴벽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도 13 <燉煌石窟 第296窟 窟頂 善事太子 入海品(之四)>, 北周, 彩色壁畫, 未詳, 燉煌石窟 (『中國美術全集, 繪畫編 14 燉煌壁畫 上』, 도140)

3. 執寶珠菩薩像 圖像의 變化過程 新解釋

지금부터는 능시대자류 본생담에 근거한 造像으로 확정할 수 있는 작품 예를 검토하여 도상의 성립과 전개 양상을 다루어보겠다. 이 유형의 본생담을 작품으로 조형한다고 전제할 때 주인공인 능시대자는 여래보다는 보살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또 여의보주는 필수로 형상화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구상 단계부터 보주와의 관계 속에서 조상 형태가 결정되었을 당시의 조형 정황을 떠올린다면 그에 적합한 형식으로 보주를 지물로 해 가시적으로 부각시켜 강조했을 보살 형식이 선택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석가모니 본생담이 인도에서 형성되었던 점이나 註23에서 언급했던 법현의 서술을 염

³⁸ 松本榮一, 『燉煌畫の研究』(東方文化學院東京研究所, 1937), pp.174-181.

³⁹ 맥적산의 초기 석굴에는 본생도를 비롯한 불전도나 인연설화도를 묘사한 벽화들이 별로 없다. 구노미키, 최성은 역, 『중국의 불교미술-후한시대에서 원시대까지』(시공사, 2001), pp.30-32.

두에 두고 생각하면⁴⁰ 인도에서도 보주와 관련된 보살상을 제작했을 가능성은 엿보인다. 하지만 현재까지 중국의 조각상보다 시기가 올라가는 작품 예를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중국의 것을 대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중국의 불교조각사에서 보주를 지물로 한 보살상은 북위 대인 5세기 중엽부터 등장하여 수 대에 이르기까지 조상 예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 조상은 보주와 손과의 관계에 따라 조형 형태면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손 모양에 의해 두 손을 가슴 부근에서 모아 보주를 받든 형식과 보주를 한 손으로 들어 올린 형식, 그리고 두 손을 가슴 부근에서 위아래로 둥글게 하여 보주를 감싼 형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물론 이 세 가지 형식은 이후 서로 뒤섞여 복잡해지기도 하지만 전개 과정의 초기에는 개략적인 분류가 가능하다. 지물로 등장하는 보주의 형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화염에 휩싸인 형태도 보이지만 초기에는 주로 둥근 형태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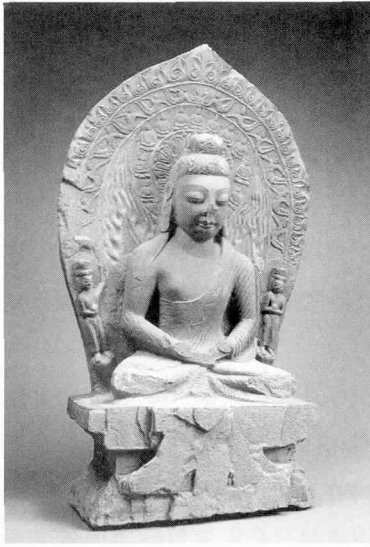
이에 대해 기존의 연구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통합하여 執寶珠菩薩像으로 칭하고 세 번째 것은 捧持寶珠菩薩像으로 호칭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첫 번째는 捧寶珠菩薩像, 두 번째는 執寶珠菩薩像, 세 번째는 捧持寶珠菩薩像으로 변별하여 호칭하고자 한다. 그리고 북조에서 조형되었던 봉보주보살상과 집보주보살상을 선택해 이 두 도상의 양식적 전개 과정에서 드러나는 조형적 연관성과 능시대자 본생담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⁴¹

한편 이들 세 가지 형식을 협시와 단독상이라는 또 다른 기준으로 재분류해보면 봉보주보살상과 봉지보주보살상은 중국의 경우 삼존상의 협시로만 조형될 뿐 단독상으로 표현되는 경우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으며, 집보주보살상은 삼존불과 단독상 모두에서 보이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시기적으로는 이 두 형식 중에서 삼존불의 협시 형식으로 먼저 등장한다.

봉보주보살상은 5세기 중엽 무렵부터 찾아볼 수 있는데 이 형식이 보주 관련 보살상 중 처음 등장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속하는 北魏 和平二年(461)銘 石造三尊佛坐像是 禪定印을 한 本尊과 양 옆에 봉보주를 한 협시보살로 삼존을 구성한 예이다¹⁴. 협시는

⁴⁰ 註23 인용구 뒷부분의 보주와 관련된 造像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필자가 임의의 강조한 것 참조. 그런데 강조된 부분을 살펴보면 법현이 묘사한 대상이 보살상이라기보다 여래상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 본 논문의 검토 대상과는 차이를 보이지만 중국의 보주를 든 여래상이나 삼국시대 신라의 이국여래상들을 통해 위와 같은 문구에 따른 造像의 현존 예를 추정해볼 수 있다.

⁴¹ 앞의 두 형식과 달리 봉지보주보살 형식은 주로 남조의 조상에서 나타나며, 手印의 형태에 근거하여 사리 합과의 관계 속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 八木春生の 예리한 지적과 같이 수인의 발생 근원부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형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문을 통해 살펴볼 예정이다.



도 14 《和平二年(509)銘 石造三尊佛坐像》, 北魏, 砂岩, 全高 64.3cm, 西安碑林博物館 (『シルクロード・佛教美術傳來の道』, 도72)



도 15 《延興二年(472)銘 石造佛坐像》, 北魏, 砂岩, 全高 33.5cm, 大和文華館 (『中國佛教彫刻史論』, 圖版 編1, 44)

가슴 부근에서 손을 모으고 그 위에 신체에 비해 상당히 크고 둥근 보주를 올려놓았다. 이렇게 보주를 받들었다는 느낌이 잘 전달되도록 표현된 상은 이 화평이년명상 이외에도 延興二年(472)銘 石造佛坐像이 있는데, 이 상의 경우 두 손을 모아 올려 본존에게 공양물을 바치는 느낌이 화평이년명상보다 강하다도15. 그리고 대좌의 정면 중앙에는 尖拱龕을 만들고 그 안에 이불병좌를 조형해 놓았다.

이들 상처럼 협시보살이 보주를 지물로 한 삼존상은 초기에는 주로 坐像 형식으로 나타나다가 이후 立像도 등장하며 이후 수 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제작되는 점으로 미루어, 이 형식이 중국 고대의 인기 도상이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초기에는 삼존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점점 五尊, 七尊으로 眷屬이 증가하는 시대적 양식 변천과도 맥락을 함께 하며, 본존의 수인은 초기에 禪定印을 결하였다가 5세기 말경에 이르면 施無畏·與願印으로 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형식으로 제작된 예는 몇 점 더 보이지만 이후 계속 제작되지 않고, 협시보살이 지물을 취하는 방식에도 집보주 형태가 등장하여 이전의 봉보주 형태와 혼효되는 현상을 보인다.

그리고 施無畏·與願印 三尊佛 형식에 적용되던 조형 원리는 이윽고 시무외·여원인



도 16 <武定三年(545)銘 石造三尊菩薩立像>, 東魏, 石灰岩, 全高 71.2cm, 香雪美術館 (『中國佛教彫刻史論』, 圖版 編1, 281b)

을 한 보살을 본존으로 하는 보살삼존 형식으로 파악된다. 본래 시무외·여원인 보살삼존상은 관음보살을 본존으로 하는 형식으로 북위 대부터 제작되어 왔는데, 동위 대에 이르면 기존의 도상에 협시상에만 봉보주 형식을 받아들여, 마치 보주를 지물로 한 협시로 구성된 시무외·여원인 삼존불 형식과 같은 맥락으로 변화하고 있다^{16, 42} 이때 이들 보살삼존상의 본존도 銘文을 통해 관음보살로 밝혀진 경우가 많다.

이번에는 집보주보살상의 성립과 전개 양상을 살필 차례인데, 이에 앞서 집보주보살상이 성립되기 이전의 조형 상황을 간단하게나마 짚어 보면 다음과 같다.

운강석굴이나 용문석굴을 포함한 초기의 石佛과 金銅佛 조상에서 집보주보살상이 삼존불의 협시로 조형되기 전에는 협시보살이 합장을 하거나 연봉오리를 든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다가 점차 이 삼존불 형식에서 집보주보살상이 시무외·여원인의 본존과 연봉오리를 든 보살상과 더불어 삼존불 형식을 구성하는 협시보살로 자리잡아 가는 것 같다.⁴³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물이 원형이라기보다 상대편 협시보살과 마찬가지로 거의 연봉오리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이다. 龍門石窟 古陽洞에 또렷한 원형 보주의 예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도 원형 보주의 형태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모호한 형태로 제작된 것은 다른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¹⁷. 이 점에 대해서는 가설에 불과한데, 원형 보주를 화염 부분까지 포함해서 볼 경우 외형이 연봉오리와의 형태적 친연성을 보일 수 있는 점에 주목한다면 이로 인해 두 형태 사이의 모호함이 기인했을 가능성을 지적할 수 있다.⁴⁴

⁴² 삼존불상과 마찬가지로 입상·좌상 형식, 삼존·오존·칠존 형식을 망라하며 수 대까지 꾸준히 제작된다.

⁴³ 이 경우도 본존은 시무외·여원인을 하고 있으며, 입상·좌상 형식, 삼존·오존·칠존 형식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여 봉보주보살상과 비슷한 전개 양상을 보이고 있다.

⁴⁴ 중국에서 보주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화염형을 한 형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논문으로는 八木春生, 「中國南北朝時代における摩尼(寶珠)の表現の諸相」, pp.116-121과 「中國南北朝時代における摩尼(寶珠)の表現の諸



도 17 <龍門石窟 古陽洞 北壁第三層第一龕 摩尼寶珠文樣>, 5세기 말, 石, 龍門石窟 (『雲岡石窟文樣論』, 도29)
 도 18 <正光三年(522)銘 青銅三尊佛立像>, 北魏, 青銅, 像高 26.0cm, 藤井有隣館 (『有隣館精華』, 도22)

그러다가 북위 말기인 正光期 조상에 이르면 지물의 형태가 연봉오리와 확연하게 구분 되어 원형 보주가 지물로 정립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해당하는 시무외·여원인 삼존 불 중 원형 보주와 연봉오리의 형태가 명확한 예로는 北魏 正光三年(522)銘 青銅三尊佛立像을 들 수 있다¹⁸. 이 상은 정광기 후반의 양식적 특징이 잘 드러난 작품으로, 시무외·여원인 석가모니불을 본존으로 하고 우협시는 왼손으로 연봉오리를, 좌협시는 오른손으로 화염에 휩싸인 둥근 보주를 들고 있다.

정광년이라는 이 상의 제작 연대는 북위와 동위를 연결하는 과도기적 시기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증명하듯이 이 상을 시초로 이후 동위 대 조상에 이르면 시무외·여원인 삼존불 형식에서 김보주보살상이나 봉보주보살상 모두에서 지물 형태가 또렷해져 다른 지물과 명확히 구분된다¹⁹.

지금까지 보주를 지물로 한 보살상의 예를 초기부터 동위까지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相」再論』, pp.94-108을 들 수 있는데, 여기서 그의 견해를 논증하기 위해 선택한 도판들을 살펴보면 이 시기 화염형으로 둘러싸인 보주의 외형이 연봉오리와 매우 흡사하여 구분하기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화염형으로 둘러싸인 보주 형태를 '尖頂寶珠'라고 부르고 이 형태의 祖形을 蓮華의 蕾로 본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강우방, 『圓融과 調和』(열화당, 1990), p.234와 水野清一·長廣敏雄, 『雲岡石窟』(1952).



도 19 〈石造三尊佛立像〉,
東魏(6세기 전반), 石灰岩,
全高 102cm,
리트베르히美術館 (『中國佛教
彫刻史論』, 圖版 編1, 264a)

두 형식 중 봉보주보살 형식이 집보주보살 형식보다 먼저 등장하는 것 같으며 북위 말에 이르면 두 도상 모두 지물의 형태가 확정되고 연봉오리를 든 보살상과 더불어 시무외·여원인 본존을 중심으로 한 삼존의 도상이 정립된 것이 이 형식의 외형적 특징이다.

한편 이 시기 보주 관련 보살상의 내면에 내재된 신앙의 내용을 알 수 있는 특징 중 두드러진 점은 봉보주보살상 형식에서 발견할 수 있다. 봉보주 형태로 지물을 받든 조상의 등장은 손의 형태가 어떤 대상을 받쳐 올리는 모습이라는 측면에서 서역의 '바라문이 如意珠를 부처님께 布施하고 道를 얻은 인연' 장면 벽화에 보이는 여의주를 바치는 바라문의 손 모양과 흡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적인 유사성을 근거로 이 지물이 공양물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화평이년 명상을 비롯해 봉보주 형식의 보살상을 협시로 둔 시무외·여원인 삼존불 형식은 협시상이 본존께 공양물을 올리는 장면을 형상화한 것으로 추정해도 좋을 것이다.⁴⁵

그런데 '供養'의 개념에서 비롯된 봉보주라는 손의 모양은 단순히 공양물을 바치는 행위를 표현했다기보다 『法華經』 「妙音菩薩品」과 「觀世音菩薩普門品」에 서술된 '보주와 瓔珞 공양' 장면을 형상화할 때 선택되어 전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⁴⁶ 삼존상의 경우 명확하게 이 장면을 도해했다고 생각되는 작례로는 東魏 武定元年(543)銘 石造五尊佛立像을 들 수 있다²⁰. 이 상은 정면에 시무외·여원인을 한 본존과 양 협시, 두 구의 僧像을 배치하였는데, 양 협시의 지물은 모두 파손되어 파악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런데 후면에는 『法華經』의 한 장면으로 여겨지는 法會의 모습을 섬세하고 부드러운 저부조로 조형한 장면이 보인다. 화면의 중앙에는 多寶塔의 내부로 상징되는 공간 안에 석

⁴⁵ 이렇게 '供養' 장면을 나타내는 특성상 본존이 선정인을 한 석가모니에서 미륵이나 관음보살에 이르기까지 석가모니를 비롯한 다른 존격에도 적용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다양하게 변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⁴⁶ 중국 내에서 행해진 『法華經』의 유포와 이 경전이 누렸던 인기를 감안하면 보주를 지물로 한 협시상으로 구성된 수많은 시무외·여원인 삼존상의 작례가 해명될 수도 있다고 사료된다.

가여래와 다보여래가 둘 사이에 놓인 연꽃을 마주보고 앉아 있고, 이 공간의 외부에는 협시처럼 두 보살상이 서 있고 정면 중간 아래쪽에 연꽃을 가운데 두고 좌우 대칭으로 무릎 꿇은 僧形 인물이 보인다. 석가여래와 다보여래가 함께 앉아 있는 형태로 보아 「見寶塔品」을 도해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두 여래의 左側에서 있는 보살이 두 손에 각각 화염에 둘러싸인 원형 보주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미루어 다보여래가 등장하면서 동시에 보주도 언급된 「觀世音菩薩普門品」의 한 장면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야 타당할 듯하다. 이 품에서 무정원년명상 부조와 관련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전 구절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도 20 <武定元年(543)銘 石造五尊佛立像(뒷면)〉, 東魏, 石灰岩, 全高 142cm, 이사벨라·스튜어트·가드너미술관(『中國佛教彫刻史論』, 圖版編1, 285)

그 때 무진의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부처님께 합장한 뒤 말씀을 올렸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어떤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일컬어지게 되었나이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량한 백천만 억 중생이 휩싸일 때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듣게 되어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니라.”…… 무진의보살은 자기 목에 걸린 값비싼 보배 구슬과 영락을 풀어 관세음보살께 올리고 이어서 말을 이었다. “고귀한 어른이시여, 범 보시로 올리는 이 보배 구슬과 영락을 받으소서.” 관세음보살이 받지 않자 무진의보살이 관세음보살에게 다시 말했다. “……이 영락 등을 받으소서.” 이에 관세음보살은 즉시 사부대중과 천룡팔부를 불쌍히 여겨 영락 등을 받아 들로 나누어 일부는 부처님께, 나머지는 다보여래 탑에 올렸다…… 「觀世音菩薩普門品」⁴⁷

⁴⁷ 『한글대장경 정법화경 외』(동국역경원, 1994), pp.708-712. 이 품 이외에 『法華經』 「妙音菩薩品」에도 석가여래와 다보여래의 모습과 영락으로 지칭한 보주를 공양하는 행위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자 석가모니불께서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셨다. “오래전 입멸하신 다보여래께서 그대들을 위해 모습을 나타내실 것이니라.” 그 때 다보여래께서 나타나셔서 저 묘음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묘음보살의 눈은…… 이 보살은…… 칠보 좌대에서 내려 값비싼 영락을 지닌 채 석가모니불 앞에 나아가 머리 숙여 발에 예배 올린 뒤 영락을 바쳤다…… 그 때 묘음 보살마하살이 석가모니불과 다보여래의 탑에 공양을 올리고 나서 다시 불국토로 돌아가는데……(『한글대장경 정



도 20-1 <武定元年(543)銘 石造五尊佛立像
(뒷면)－세부>, 東魏, 石灰岩,
全高 142cm, 이사벨라·스튜어트·
가드너미술관 (『中國佛教彫刻史論』,
圖版 編1, 285)

위에서 강조한 구절은 보주 공양과 관련되었
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무정
원년명상 후면의 보살상이 손마다 각각 하나씩 보
주를 들고 있는 형태는 「觀世音菩薩普門品」에서 관
음보살이 무진의보살에게 받은 영락을 둘로 나누어
석가모니와 다보여래에게 공양하기 위해 들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형상임에 분명하다^{도 20-1}.

그런데 같은 봉보주보살상이라 하더라도 일괄
적으로 도상을 확정짓는 것은 무리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정원년상과 같이 두 손 모두에 지물을
든 것은 흔치 않지만 典據가 된 경전의 줄거리와 조
형 예를 비교해보면 경전에 서술된 정황과 조형 내
용이 비교적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 이에 따라 보
주를 든 보살상은 관음보살로 尊名을 확정지어도
되지만, 반면 앞에서 들었던 도 16과 같이 관음으로
밝혀진 시무의·여원인 보살본존을 협시한 보살이
봉보주한 경우는 「觀世音菩薩普門品」에서 관음보살에게 보주를 공양하는 무진의보살로 파
악해야 하는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⁴⁸

법화경 외」[동국역경원, 1994], pp.704-708) 그러나 두 손에 각각 보주를 나누어 받들고 있는 형태로 미루어 「觀世音菩薩普門品」에 의거한 조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⁴⁸ 집보주보살상을 『法華經』에 의거해 제작된 관음보살로 보고 있는 연구자는 강희정이다. 보주가 초기에 목걸이 형태였다는 점에 착안해 내용을 전개했는데 심엽형 형태의 목걸이를 대상으로 한 결과 집보주라는 용어를 심엽형 지물을 권 것으로 파악하기에 이르고 있다. 그로 인해 남조의 보통사년(523)명 석조석가모니입상의 본존 옆 심엽형 지물을 들고 있는 보살을 관음보살로 보고 가장 바깥쪽에서 등근 사리 호를 봉지보주한 상을 무진의보살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보주로 간주하고 있는 심엽형의 경우 보주 형태로 간주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그 점에서 등근 원형 보주를 영락으로 본 필자와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강희정, 『중국 관음보살상 연구』(일지사, 2004), pp.150-155. 한편 보주로 알려졌던 南朝의 成都 萬佛寺址 出土 中大同三年(548)銘 石造菩薩立像의 보주가 함이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大西修也는 『관미륵보살상생도술천경』의 내용에 근거한 사리 공양의 상징으로 관음보살을 보고 있다. 大西修也, 『寶珠捧持菩薩の成立過程について』, 『日韓古代彫刻史論』(福岡:中國書店, 2002), pp.171-189. 그러나 이 상의 양 협시가 들고 있는 원형의 지름 부분에 두 줄의 선각이 들어간 지물은 본 논문의 II장에서 다루었던 원형 보주 유형 중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사리함으로 보기보다 보주 형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형태를 원형 보주로 간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 상도 북조의 봉보주/집보주보살상과 같은 맥락에서 시무의·여원인 관음보살을 본존으로 한 삼존상의 일례로 파

따라서 이들 두 예만 보아도 보주를 지물로 한 보살상을 특정한 하나의 존상으로 확정하기에 봉보주라는 행위가 절대적 기준으로 작용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단독상처럼 판단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선불리 尊名을 결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도 18로 든 정광삼년명 청동삼존불 입상처럼 협시가 연봉오리를 권 것과 보주를 집보주한 경우는 위와 같은 견해에 따른다면 어떻게 존상명을 결정해야 할지도 문제로 제기된다. 앞과 같은 맥락에서 「觀世音菩薩普門品」에 따라 연봉오리를 권 보살상을 관음보살로 상정하고, 보주를 든 보살상을 무진의보살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봉보주/집보주의 형식적인 차이



도 21 〈成都 萬佛寺址 出土 中大同三年(548)銘石造菩薩立像〉, 梁, 砂岩, 全高 43.6cm, 사천성박물관 『中國國寶展』, 圖版87)

는 막론하더라도 경전에서 언급했듯이 공양의 대상자인 관음보살과 공양자인 무진의보살이 동등한 위치에 배치되게 되므로 무리가 발생하게 된다.

본존상은 명문을 통해 석가모니불로 밝혀졌으므로,⁴⁹ 협시인 연봉오리를 든 보살상의 경우 관음보살로, 집보주보살상의 경우 도 20-1로 든 무정원년명상처럼 「觀世音菩薩普門品」에 근거를 둔 관음보살의 변형으로 본다면, 주로 남해를 왕래하는 해양 상인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며 제난구제로 요약되는 이 「觀世音菩薩普門品」의 성격상 다시 능시대자류 본생담과 연관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보살상의 尊名이 능시대자와의 관계로 다

악할 수 있다. 다만 중대동삼년상의 경우 보주를 든 손의 형태가 북조의 집보주나 봉보주 형식과는 달리, 남조의 상들에서 볼 수 있는 봉지보주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차이만을 지닐 뿐이며, 이것은 八木春生の 의견처럼 사리합이나 鉢을 받들 때 지었던 모양에서 온 것으로 본 논문의 II장의 소결론처럼 불사리가 보주와 밀접한 관련을 가졌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봉지보주수인의 내용물이 충분히 보주로 변형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북조에서 초기부터 성립된 시무외·여원인 삼존불의 형식이 변형된 도 16와 같은 시무외·여원인 보살본존과 봉보주보살 협시로 본다면 이 상도 역시 「觀世音菩薩普門品」에 의거해 무진의보살에게 공양을 받는 관음보살로 존명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이 상의 명문을 비롯해 중국 남북조 당시의 양식이나 신앙 내용적인 면에서 전체적으로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도 21}.

⁴⁹ 명문이 있지만 내용은 보지 못했고, 소장처에서 펴낸 도록의 작품 설명을 참조하였다. 有隣館, 『有隣館精華』(藤井齊成會, 1996) 도 21.

시 귀결될 수 있다.⁵⁰

그러나 확실한 결론을 위해서는 이들 삼존상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연구를 진행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더 이상의 단정적인 결론은 보류하고자 한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이 상과 같은 형식을 한 조상을 능시대자류 본생담을 소재로 한 유례로 확신할 수는 없다.

지금까지 살펴 온 것이 동위 대까지의 집보주/봉보주보살상의 조형 상황이었다. 그런데 北齊·周 代가 되면 기존의 시무외·여원인 삼존 형식이라는 맥락 안에서 일관적·지속적으로 조형되던 도상 형식과 내용에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첫째, 위의 도상으로 구성된 시무외·여원인 삼존상 협시보살의 지물이 거의 예외 없이 보주로 인식할 수 있는 둥근 형태나 둥근 보주가 화염에 휩싸인 형태로 확립된다.

둘째, 수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면서 변화가 두드러져 시무외·여원인 삼존불 형식뿐 아니라 시무외·여원인 보살삼존 형식도 증가하게 된다.⁵¹ 그리고 이 보살삼존 형식의 경우에도 16의 상에서는 한쪽 협시만 보주를 지물로 한 데 비해, 양쪽 협시가 보주를 지물로 하는 것으로 변해 간다.

셋째, 시무외·여원인 삼존불 형식에서 연봉오리를 지물로 한 보살상은 고정시키고 나머지 협시보살에 집보주보살상/봉보주보살상/봉지보주보살상 세 형식이 임의적으로 혼용되는 양상을 보이다가 집보주보살상으로 정립되어 간다.

넷째, 집보주보살 단독상의 출현이다. 이는 집보주보살상이 점차 삼존상의 협시라는 종속적 위치에서 벗어나 독립된 신앙의 대상으로 변해 가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보살병립상의 대두와 함께 복제 대에 들어와 발생한 획기적인 변화로 생각된다.⁵² 이 경우 오로지 집

⁵⁰ 강희정, 앞의 책, pp.40-42.

⁵¹ 시무외·여원인 삼존불상 형식에 적용되던 조상의 조형 원리는 이윽고 시무외·여원인을 한 보살을 본존으로 하는 보살삼존상으로 파급된다. 본래 시무외·여원인 보살삼존상은 관음보살을 본존으로 하는 형식으로 복위대부터 제작되어 왔다. 그런데 동위 대에 이르면 기존에 존재하던 이 도상이 협시 존상에 집보주 형식을 받아들여, 마치 집보주보살을 협시로 한 시무외·여원인 여래삼존상 형식과 같은 맥락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여래삼존상과 마찬가지로 입상·좌상 형식, 삼존·오존·칠존 형식을 망라하며 수 대까지 꾸준히 제작된다. 이때 이들 여래삼존상과 보살삼존상의 본존은 銘文을 통해 여래는 석가모니불이 많고, 보살은 관음보살이 많음을 알 수 있다.

⁵² 집보주보살 단독상이 전개되기 바로 전 단계에 해당하는 형태는 東魏代 元象二年(539)銘 石造菩薩立像을 비롯한 주로 하북성 곡양 출토 유물에서 보인다.^{도22} 이 상도 앞에서 다루었던 삼존상과 마찬가지로 지물의 형태가 연봉오리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상태로 조형되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연봉오리를 든 관음보살 형식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듯하다. 따라서 이 시기의 것들은 연봉오리를 든 관음보살과 집보주보살의 도상이 混淆되었을



도 22 <元象二年(539)銘 石造菩薩立像>, 東魏, 白大理石, 全高 28cm, 河北省 曲陽縣 修德寺址 出土 (『中國佛教彫刻史論』, 圖版 編1, 252)

도 23 <天保五年(554)銘 金銅菩薩五尊像>, 北齊, 金銅, 高 29.6cm, 藤井有隣館 (『特別展 中國の金銅佛』, 도40)

보주보살상만 단독상이나 이보살병립상 형식으로 표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북제 대 天保五年(554)銘 金銅菩薩五尊像은 본존이 보살로 조형된 집보주보살상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상이다²³. 오존상이라고는 해도 본존의 크기가 협소한 僧像이나 力士像, 供養者像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월등히 큰 점이나, 본존에 맞추어 적절히 비례가 맞도록 대좌를 제작한 점은 이 상을 오존상이라기보다 단독상으로 느끼게 하는 탁월한 조형 장치이다. 또한 장식을 최대한 절제하고 옷주름을 아예 생략할 정도로 기교를 배제하여 보살상 전체에 정적인 느낌을 부여한 조형감은 자비로운 보살상의 표정과 손에 든 원형 보주·寶冠 정면의 보주형 장식을 두드러지게 부각시켜 보는 자로 하여금 단번에 인식하게 한다. 그 결과 보살상 자체와 보주를 최대한 강조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 상은 본존인 보살상이 오른손을 들어 둥글고 커다란 보주를 제시하는 행위를 통해 정광삼년명상을 비롯한 이전의 보주 관련 조상에서 볼 수 없었던 보주 강조의 의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렇게 손바닥을 보이며 손가락으로 보주를 들어 올려 제시할 때는 봉보주의 경우와 같은 단순한 공양물인 영락의 의미를 넘어서기 때문에 신비로운 물체라는 여의

가능성도 엿볼 수도 있다. 이 상들도 역시 명문에 관음으로 적힌 예가 많이 보인다. 이에 반해 수덕사지 출토 집보주보살 단독상은 북제 대 작품까지도 지물의 형태가 완전히 정립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도 24 <開皇十九年(599)銘 金銅菩薩立像>, 隋, 金銅,
全高 13.4cm
(『中國佛教彫刻史論』, 圖版
編2, 588a·b)

보주의 본래 의미로 대중에게 인식되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조상 안에서 생생하게 표현된 집보주라는 행위로 인해 이 보살상을 여의보주를 든 능시대자로 볼 수 있음에 따라 이 유형의 본생담에 따라 조형화된 조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상에서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 상에 제작 연대와 “觀世音像”이라고 적힌 銘文을 새겨놓은 점인데, 이 銘文으로 말미암아 능시대자와 관음보살 사이의 긴밀한 연관성을 예상할 수 있다.⁵³ 즉 조각상의 도상적인 측면에서는 능시대자를 표현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 도상을 받아들여 관음으로 제작했음을 입증하기 때문에 능시대자와 관음보살이 보주를 매개로 해 융화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상의 존재를 통해 이 시기에 이르면 보주를 획득한 능시대자류 보살이 관음보살로 일반 대중에게 수용되고 있었던 신앙의 변모를 파악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관음이 중생을 향한 자비심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존격일지라도 석가모니와는 전혀 관계 없는 기원과 나름대로의 전개 양상을 지니고 존재해 왔는데, 이러한 관

음의 성격에 보주를 매개체로 하여 석가모니의 자비심이 투영되어 들어감으로써 관음보살과 석가모니가 직접 상관되기에 이른 조형적 순간을 예상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집보주보살 단독상 형식은 수 대에 이르면 제작 횟수가 증가한다. 그리고 독립적인 위치를 획득하여 연봉오리를 지물로 한 보살 단독상과 함께 관음 도상의 하나로써 정립되어 나가기에 이른다. 이때 보주는 큰 것, 작은 것, 화염에 휩싸인 것을 막론하고 가리지 않지만, 보주의 속성을 명확히 하여 지물을 강조하기 위해 원형이라는 형태는 반드시 固守하고 있다^{도24}.

다섯째, 동위 대부터 간혹 보이던 이보살병립상이 이 시기에 이르면 수량 면에서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보살병립상은 보살상 2구가 광배 하나에 좌우대칭으로서 있는 도상

⁵³ 大齊天保五年歲次申戌八月乙卯朔五日比(右側) 丘惠愍樂安貳安兒等爲妹……(背面)……觀世音像壹軀上爲七世父母眷大小又爲群生文形……勝……(左側). 大和文華館, 『特別展中國の金銅佛』(大和文華館, 1992), p.72.



도 25 <太寧二年(562)銘 石造二菩薩並立像>, 北齊, 白大理石, 全高 54cm, 河北省 曲陽縣修德寺址 出土 (『中國佛教彫刻史論』, 圖版 編2, 407)



도 26 <開皇七年(587)銘 金銅二菩薩並立像>, 隋, 金銅, 全高 31cm, 프리어美術館 (『中國佛教彫刻史論』, 圖版 編2, 512)

을 가리키는 용어로 河北誠 曲陽에서 출토된 修德寺 유물에서 특히 많이 보인다⁵⁴. 그런 데 도 25 같은 수덕사지 출토 이보살병립상들이 두 보살의 지물의 형태가 분명하게 분화되기 이전의 작품인 반면 개황칠년(587)명 금동이보살병립상은 지물의 형태가 분명히 정립되어 도상이 확립된 예로써 조형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²⁶.

이렇게 두 상을 나란히 안치하는 방식은 외형적으로는 『法華經』 「見寶塔品」에 기반을 둔 석가·다보여래의 이불병좌상 형식을 차용한 것이다. 하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시무의·여원인 여래삼존상의 양협시인 집보주보살상/연봉오리를 든 관음보살상의 구성과 일치하는 점에서, 이보살병립상이라는 형식이 두 보살상을 강조하기 위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도상은 기존의 형식을 빌려 새로이 창안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銘文이 있는 상의 경우 주로 “雙觀音像”으로 적고 있어 이 두 상을 모두 관음보살로 볼 수 있다.⁵⁵

⁵⁴ 大西修也는 이보살병립상으로 제작된 관음 두 상에 관음의 매개신으로써의 성격을 적용시켜 이 두 상 다 매개신으로 보았다. 大西修也, 「阿彌陀·彌勒信仰の實態と圖像」, 『論叢 佛教美術史』(吉川弘文館, 1986), p.317.



도 27 <石造菩薩立像>, 隋, 黃華石, 全高 103cm, 西安碑林博物館 (『中國佛教彫刻史論』, 圖版 編2, 587b)

도 28 <大象二年(580)銘 石造佛立像>, 北周, 石灰岩, 全高 65cm, 上海博物館 (『上海博物館 中國古代雕塑館』, p.18)

이보살병립상으로 조형되던 연봉오리를 든 보살상과 집보주보살상은 西安碑林博物館藏 石造菩薩立像에 이르면 두 보살상을 분별케 하던 연봉오리라는 표식과 보주라는 표식이 보살상 한 구 안에서 통합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도27}. 그러므로 서안비림박물관장 석조보살입상처럼 오른손으로 연봉오리 줄기를 잡고 왼손으로 화염형 보주를 들고 있는 형태는 석가모니의 전생 보살의 표식이었던 보주가 관음보살의 연봉오리와 결합함으로써 관음보살이 상징하는 자비심을 극대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집보주 여래 형식의 등장이다. 집보주한 존상의 형식은 주로 보살형에 나타나는데 비해, 北周 말에 이르면 예외적으로 여래입상이 한 손에 보주를 쥐는 형식이 보인다. 바로 大象二年(580)銘 石造佛立像으로, 銘文도 갖추고 있어 제작 연대와 존상명을 알 수 있는 귀한 예이다^{도28}. 대좌 정면에 새겨진 명문을 통해 이 여래상이 석가모니상임을 알 수 있으며, 시무외·여원인을 취한 형태를 다소 변형하여 왼손에 화염형 보주를 쥐고 있다. 따라서 이 수인은 앞에서 다루었던 시무외·여원인 여래삼존상 본존의 수인과 동일한 점에서 여전히 그 범주의 연장으로 파악할 수 있다. 지물로 보아 능시대자류 분생담에 근거한 조형으

⁵⁵ 楊伯達, 松原三郎 역, 『埋もれた中國石佛の研究』(東京美術, 1985), 도36, 太寧二年(562)銘 二菩薩並立像의 銘文을 참조하였다.

로 파악할 수 있는데 여래형을 선택한 점이 아주 독특하다. 이러한 조형은 본생담에 의거한 조형으로써 보편적으로 보살형을 선택하였지만 능시대자가 석가모니와 전생/현생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래형으로도 변형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예이다. 이 상으로 인해 집보주보살상과 석가모니불이 조형적으로 회통관계에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여래상이 직접 보주를 지물로 권 경우 석가모니가 중생에 대한 그의 자비심을 직접 顯示함으로써 중생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간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집보주여래상 형식은 이 밖에도 곡양 수덕사지출토 유물에서 몇몇 예를 더 찾아볼 수 있다.

집보주보살상 도상이 연봉오리를 든 관음 도상과 결합되어 고정된 圖像이 성립되고 전개되는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신앙적 변모를 드러낸 사건은 복제·주 대에 이르러 기존의 삼존형식에서 본존을 제외하고 두 보살상만 조형되는 형식을 창안한 것이다. 이 형식에 해당하는 이보살병립상 작품의 명문에는 이 두 보살상을 '觀音'으로 분명하게 지칭한 상이 많다.

또한 천보오년명상에서 보이듯이 집보주보살상을 강조하여 조형한 단독상이나, 연화수·집보주보살상이 하나로 융합되는 현상도 동일한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여래를 향한 신앙이 점차 보살을 향한 신앙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명확치 않지만 이전부터 이미 대중에게 알려져 있었다고 생각되는 능시대자류 본생담이 갑자기 부각되어 유행함으로써, 석가모니의 정각보다는 여의보주가 상징하는 일체중생에 대한 석가모니의 자비심이 대중의 마음에 反響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일반 대중이 불교적인 깨달음이나 깨달음을 성취한 존재인 석가모니의 여래의 모습보다, 보주를 통해 중생의 모든 바람을 충족시켜 줌으로써 자비심을 오롯이 드러내는 석가모니의 보살 모습이나 관음보살에 점차 이끌리게 되었음을 알려준다. 따라서 집보주보살상 도상의 전개 과정에는 당시 변화되어 가는 신앙의 내용 변화도 반영되어 있다고 하겠다.

천보오년명상의 경우도 보주라는 지물을 강조하고 있지만 명문에 적힌 '觀音'이라는 호칭으로 미루어 이미 석가모니의 전생 보살과 관음보살이 보주라는 매개체를 중심으로 결합된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후 증가하는 집보주보살상 단독상도 동일한 맥락에서 관음상을 조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 도상은 집보주관음보살로 부를 수 있으며, 석가모니와의 직접적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존격으로 보살 형식이지만 중생을 향한 석가모니의 마음, 그 자체로서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졌다고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삼존불 형식을 구성하던 협시보살에서 보살 단독상으로의 변모라는 집보주보살

상 도상의 정립 과정은 다시 말해 기존의 연봉오리를 든 관음과 석가모니의 전생 보살과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존격의 탄생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도상을 관음으로 호칭한 것은 관음이라는 호칭이 상징하는 '일체 중생의 회구 충족'이라는 성격을 한 몸에 온전히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보주라는 매개체를 통해 석가모니불이 경험한 求道 과정의 고난과 깨달음의 희열, 그리고 일체 중생의 고통에 대한 연민과 자비심까지 빠짐없이 전달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IV. 맺음말

본 논문은 기존의 연구자들이 남조의 봉지보주보살상을 선택하여 보주를 지물로 한 보살상을 연구하는 방법과는 달리 오히려 다수의 조상 예를 남기고 있는 북조의 집보주보살상을 대상으로 삼아 당시의 신앙적 정황을 살피고자 했다. 이 형식의 보살상에 대해서는 주로 단편적으로만 다루어졌을 뿐 이들만을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연구 대상을 가능한 한 시기에 따라 분류한 후 그 안에서 전개되는 변화 양상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해보았는데,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다만 보살상 안에 내포된 조형의 총체적 본질을 밝히기 위해 연구 과정에서 보주의 실체와 상징성을 파악하는 데에는 최대한 비중을 두었다.

그런데 연구 결과는 집보주보살상으로 연구 대상을 한정하였기 때문에 마치 보주를 지물로 한 전체 보살상의 일부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뜻밖에도 오히려 남조의 봉지보주보살상 전체를 그 일부로 아우를 수 있는 일관된 조형 원리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것은 나름대로의 큰 수확이었다.

다음에는 본 논문에서 새롭게 밝혀진 것을 간단히 요약해보겠다.

1. mani는 불교의 발생 이전부터 이미 많은 의미를 내포한 용어로서 인도의 베다에 등장하고 있다. 베다의 역사적 전개에 따라 보주의 의미가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여의보주의 기능이 불교 사상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이미 인도 고유의 사상 속에서 태동되어 전해졌을 가능성도 제기할 수 있다.
2. 본 논문에서는 보살의 지물로 등장하는 보주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형태에 따른 분류를 시도한 결과 보주에는 육각 결정형, 팔각형, 원형의 세 가지 유형이 존재하였음

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세 유형은 기존의 연구 결과와 달리 별개의 의미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주라는 커다란 유기체적 존재 안에서 조금씩 변형된 형태일 따름일 뿐이며 모두 사리와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기능하고 있었다.

3. 그리고 사리장엄구와 이들 세 유형과의 관련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육각 결정형 보주 형태로 된 사리 內용기를 찾아내었다. 그로 인해 지금까지 사리와 별도로 취급해 오던 육각 결정형 보주도 사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밝혀내었다.
4. 원형 보주가 사리의 대체물로 대중에게 수용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형으로 테두리만 진 것과 원형의 테두리 안에 두 줄을 그은 것은 비록 형태적인 측면에서 조금 차이가 나지만 결국 사리를 상징하는 물체로서 석가모니와의 관계를 전제로 보살의 지물에 도입되어 보살상의 성격을 결정했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5. 보주의 불교적 의미와 기능을 살피기 위해 보주를 지물로 한 조상들이 성행하는 시기에 한역된 불교 경전에서 보주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구절을 검토하여 그 상황을 통계적으로 분석·종합해보았는데, 보주의 신비로움에서 비롯된 불가사의한 비유를 제외하면 석가모니의 본생담 중 하나인 능시대자류 본생담을 중심으로 단일한 하나의 카테고리 형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 설화의 공통요소들을 추출해본 결과 이 본생담은 남해를 둘러싼 해상무역과 주로 관련되어 있으며, 관음의 所衣經典인 『法華經』 「觀世音菩薩普門品」의 주된 내용 중 하나인 諸難救濟와도 상관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하여 보았다.
6. 보주를 지물로 한 보살상 형식의 성립과 전개 양상을 살피기 위해 초기 造像들의 지물을 엄밀하게 분석해보았는데, 보주를 권 손의 형태에 따라 봉보주보살상 형식/봉지보주보살상 형식/집보주보살상 형식,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그 중에서 봉보주보살상 형식이 중국의 초기 상들에서부터 등장하였고 봉지보주보살상 형식과 집보주보살상 형식은 그보다 늦게 조형되기 시작한 듯하다. 봉보주보살상 형식은 수인의 모습으로 미루어 '供養'이라는 행위를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法華經』의 「觀世音菩薩普門品」에 서술된 무진의보살이 관음보살께 영락을 바치는 행위와 관음보살이 이를 받아 석가여래와 다보여래께 다시 공양한 장면을 표현하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봉지보주보살상 형식은 주로 남조의 조상에서 조형되었으며, 수인은 사리와와의 관련 속에서 비롯된 형태로 북제 대에 이르면 북조에서도 조형 예가 보인다. 집보주보살상 형식은 삼존불의 협시로 조형되기 시작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주로 이 불명립상이나 단독상으로 조형되며, 북제 대에 이르면 조형 예가 증가하고 있다.

7. 그런데 세 유형을 하나의 형식으로 통합해보면, 주로 연봉오리를 권 관음보살과 대칭을 이루어 시무의·여원인을 한 본존을 협시하는 모습으로 삼존불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 형식의 시기적인 지속과 양적인 증가는 놀라울 정도이다. 이 삼존상을 구성하는 보살상의 보주 지물은 초기에는 연봉오리와 유사하여 구분이 불가능한 형태를 보이다가 복위 말경에 이르면 지물의 형태가 완성되어 삼존불을 구성하는 尊格이 일정한 예로써 하나의 유형으로 자리를 잡아간다.

그리고 동위 대부터 복제 대에 걸쳐 위와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진 삼존불 형식에서 연봉오리를 든 관음보살과 집보주보살이 하나로 세트를 이룬 이보살병립상 형식이나 집보주보살상 형식으로 된 단독상과 같은 새로운 도상들이 파생되어 나오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 '雙觀音'이나 '觀音'이라는 銘文으로 미루어 집보주보살상이 관음으로 불렸음을 알 수 있다. 이 집보주보살상을 능시대자 본생담에 근거한 석가모니의 전생 보살과 관음보살이 일체화된 조형으로 파악할 수 있다.

8. 석가모니의 전생 보살과 관음보살의 일체화라는 현상에는 석가모니가 지니고 있던 중생에 대한 자비심이 능시대자와 보주를 매개체로 하여 관음보살에 투영되는 신앙적 변모 과정이 암시되어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석가모니와 관음보살은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반 대중은 집보주보살상에서 관음보살의 자비심뿐만 아니라 석가모니의 모습도 본 것이며, 그로 인해 여러 보살 중 최고의 위치에 놓일 수 있었다. 이러한 신앙적 배경을 근거로 집보주관음보살 도상은 출현한 이래 수 대에 이르기까지 비약적인 증가를 보이며 지속적으로 성행하였다고 판단된다.

寶珠는 석가모니의 正覺의 結晶으로써 그의 깨달음을 온 천하에 顯示하는 證票이자 衆生을 향한 석가모니의 자비심을 상징하는 매체이다. 따라서 깨달음을 얻고자 수행을 하고 있는 보살들에게는 여래가 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방향성을 모색하게 해주는 指標였던 한편 일반 중생들은 각각의 根機에 따른 바람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신비로운 물체로 인식·수용하였다. 따라서 보주는 지혜로써 깨달음을 얻어 현재의 삶을 규정하는 因緣과 業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개인적인 영역(正覺, 小乘)을 넘어, 無明과 그로 인한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일반 대중을 구원하여 종교적인 영역(慈悲, 大乘)으로 탈피하게 해주는 중요한 지물로 볼 수 있다.

* 주제어(key words) — 寶珠(maṇi), 舍利(Sarīra), 觀音菩薩(Bodhisattva Avalokitesvara), 執寶珠菩薩像
(Bodhisattva with a maṇi), 執寶珠觀音菩薩(Bodhisattva Avalokitesvara with a maṇi)

■ 투고일 2007년 9월 30일 | 심사일 2007년 10월 9일 | 심사완료일 2007년 10월 26일 ■

보주는 원래 인도에서 주술적인 護符[符籙]로 시작하여 ‘고뇌로부터 구해주는 것’으로 의미가 점차 확장되었는데, 그 전개과정은 일개 瓔珞에서 如意寶珠로 변모하는 과정과 일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보살의 지물로 등장하는 보주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형태에 따른 분류를 시도한 결과 보주에는 육각 결정형, 팔각형, 원형의 세 가지 유형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세 유형은 기존의 연구결과와 달리 별개의 의미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주라는 커다란 유기체적 존재 안에서 조금씩 변형된 형태일 따름일 뿐이며 모두 사리와외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기능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리장엄구와 이들 세 유형과의 관련성을 검토한 결과 육각 결정형 보주 형태로 된 사리 내용기(사리장엄구 중 가장 안쪽에 있는 사리용기)를 찾아내는 뜻밖의 수확을 거둘 수 있었다. 그로 인해 지금까지 사리와 별도로 취급해 오던 육각 결정형 보주도 사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밝혀내었다.

또한 원형 보주가 사리의 대체물로 대중에게 수용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형으로 테두리만 진 것과 원형의 테두리 안에 두 줄을 그은 것은 비록 형태적인 측면에서 조금 차이가 나지만 결국 사리를 상징하는 물체로서 석가모니와의 관계를 전제로 보살의 지물에 도입되어 보살상의 성격을 결정했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보주의 불교적 의미와 기능을 살피기 위해 보주를 지물로 한 조상들이 행하는 시기에 한역된 불교경전 중에 보주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구절을 검토하여 그 상황을 통계적으로 분석·종합해 보았는데, 보주의 신비로움에서 비롯된 불가사의한 비유를 제외하면 석가모니의 본생담 중 하나인 능시대자류 본생담을 중심으로 단일한 하나의 카테고리 형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 설화의 공통요소들을 추출해본 결과 이 본생담은 남해를 둘러싼 해상무역과 주로 관련되어 있으며, 관음의 소의경전인 『法華經』 「觀世音보살보문품」의 주된 내용 중 하나인 諸難救濟와도 상관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해보았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보주를 지물로 한 보살상 형식의 성립과 전개 양상을 살피기 위해 초기 조상들의 지물을 엄밀하게 분석해보았는데, 보주를 권 손의 형태에 따라 봉보주보살 형식/봉지보주보살 형식/집보주보살 형식,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그 중에서 봉보주보살 형식이 중국의 초기 상들에서부터 등장하였고 봉지보주보살 형식과 집보주보살 형식은 그보다 늦게 조형되기 시작한 듯

하다. 봉보주보살 형식은 수인의 모습으로 미루어 '공양'이라는 행위를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법화경』의 「관세음보살보문품」에 서술된 무진의보살이 관음보살께 영락을 바치는 행위와 관음보살이 이를 받아 석가모니불과 다보여래께 다시 공양한 장면을 표현하는데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봉지보주보살 형식은 주로 남조의 조상에서 조형되었으며, 수인은 사리와의 관련 속에서 비롯된 형태로 복제 대에 이르면 북조에서도 조형 예가 보인다. 집보주보살 형식은 삼존불의 협시로 조형되기 시작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주로 이보살병립상이나 단독상으로 조형되며, 복제 대에 이르면 조형 예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세분되는 세 유형을 하나의 형식으로 통합해보면, 주로 연봉오리를 권 관음보살과 대칭을 이루어 시무의 · 여원인을 한 본존을 협시하는 모습으로 삼존불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 형식의 시기적인 지속과 양적인 증가는 놀라울 정도였다. 이 삼존상을 구성하는 보살상의 보주 지물은 초기에는 연봉오리와 유사하여 구분이 불가능한 형태를 보이다가 복위 말경에 이르면 지물의 형태가 완성되어 삼존불을 구성하는 존격이 일정한 예로써 하나의 유형으로 자리를 잡아간다.

그리고 동위 대부터 복제 대에 걸쳐 위와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진 삼존불 형식에서 연봉오리를 든 관음보살과 집보주보살이 하나로 세트를 이룬 이보살병립상 형식이나 집보주보살 형식으로 된 단독상과 같은 새로운 도상들이 파생되어 나오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들 조상에 적힌 '雙觀音'이나 '觀音'이라는 명문으로 미루어 집보주보살상이 관음으로 불렸음을 알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이 집보주보살상이 능시대자 본생담에 근거한 석가모니의 전생보살과 관음보살이 일체화된 조형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두 존격의 일체화라는 현상에는 석가모니가 지니고 있던 중생에 대한 자비심이 능시대자와 보주를 매개체로 하여 관음보살에 투영되는 신앙적 변모 과정이 암시되어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석가모니와 관음보살은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반 대중은 집보주보살상에서 관음보살의 자비심뿐만 아니라 석가모니의 모습도 본 것이며, 그로인해 여러 보살 중 최고의 위치에 놓일 수 있었다. 이러한 신앙적 배경을 근거로 집보주관음보살 도상은 출현한 이래 수대에 이르기까지 비약적인 증가를 보이며 지속적으로 성행하였다고 판단된다.

寶珠는 석가모니의 正覺의 結晶으로써 그의 깨달음을 온 천하에 顯示하는 證票이자 衆生을 향한 석가모니의 자비심을 상징하는 매체이다. 따라서 깨달음을 얻고자 수행을 하고 있는 보살들에게는 여래가 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방향성을 모색하게 해주는 指標였던 한편 일반 중생들에게는 각각의 根機에 따른 바람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신비로운 물체로 인식 · 수용되었다. 따라서 보주는 지혜로써 깨달음을 얻어 현재의 삶을 규정하는 因緣과 業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개인적인 영역(正覺, 小乘)을 넘어, 無明과 그로 인한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일반 대중을 구원하

여 종교적인 영역(慈悲, 大乘)으로 탈피하게 해주는 중요한 지물로 볼 수 있다.

Abstract

The Inter-rel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Cintā-maṇi and Bodhisattva Avalokitesvara

Choi Misoon*

In India, the Cintā-maṇi (Korean Poju, a wish-granting jewel), originally referred to a sort of amulet like jewel with a magical protecting power, however, its meaning had been transformed into an important Buddhist object that possesses the power of saving its believers from sufferings. This conceptual transformation, in fact, elucidates how a magical amulet had developed into an important symbolic object named as Cintā-maṇi in Buddhist visual culture.

In the first part of this paper, I have categorized the Cintā-maṇi into three different types based on its shapes: Hexagonal, octagonal, and round shapes. Unlike previous scholarships, I would like to assert that these three types of the Cintā-maṇi did not exist independently, but rather coexisted, and more importantly, they developed in a great interactive context in a close relation to the Śarīra.

While conducting a close examination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Cintā-maṇi and Śarīra, I have discovered an innermost Śarīra casket in the octagonal shape, which strongly resonates the octagonal Cintā-maṇi. Therefore, a conventional point of view that differentiates the octagonal Cintā-maṇi from the Śarīra needs to be reexamined. Moreover, I would like to assert

* Ph.D, Candidate, Ewha Womans University

that Cintā-maṇi and Śarīra had an inseparable relationship in terms of their religious and iconographic features.

Regarding the fact that the round shaped Cintā-maṇi started to be accepted as a replacement of Śarīra among lay believers, the two different décor found on the surface of the Cintā-maṇi: outlined with either one line or with two lines, seemed to be less significant at least in terms of determining the religious nature of the round shaped Cintā-maṇi. I believe that the Cintā-maṇi, which had been perceived as an symbolic object to replace the Śarīra was finally chosen as a religious attribute for Bodhisattvas based on its strong tie with Sakyamuni Buddha.

In the second part of the paper, I have discussed the significance of Cintā-maṇi and its religious function on a base of a close examination on sutras that refer to Cintā-maṇi. These sutras written in Chinese were published during the periods that saw a great number of Buddhist sculptural images holding Cintā-maṇi in the hands. The stories that mentioned the term, Cintā-maṇi, offers a comprehensive insight into how the Cintā-maṇi became associated with mysterious supernatural power. More importantly, the Cintā-maṇi often appeared in Jataka tales like the Nengshi Prince Story. This sort of stories are related to marine trades in the South Sea (Nanhai), suggesting that its scriptural origination might have been from a chapter called “the Universal Gate of Bodhisattva Avalokitesvara,” in the Lotus Sutra. This chapter is well-known for Guanyin’s various compassionate miracles that saved people in troubles.

In the third part of the paper, I have scrutinized the iconographic formation of the Cintā-maṇi as well as its periodical development. There are three types of Bodhisattva based on the way of holding the Cintā-maṇi: two hands holding the Cintā-maṇi in their palms, one hand holding the upper part of the Cintā-maṇi and the other holding the lower part, and only one hand holding the Cintā-maṇi.

Among these three types, “Two hands holding the Cintā-maṇi in their palms” appeared in earlier Chinese sculptures, while the other two types were employed in later works. In particular, “Two hands holding the Cintā-maṇi in their palms,” may be understood as a symbolic act of offerings. Probably, this particular iconography can be traced back to an episode in the chapter “Universal Gate of Bodhisattva Avalokitesvara” in the Lotus Sutra, which narrates Guayin Bodhisattva offers both Sakyamuni and Prabhutaratna with a jewel. The hands that grab the upper and lower parts of the citamani, was highly popular in the works from the Southern Dynasties

(420–589). Such a particular manner of holding the Cintā-maṇi, in fact was transmitted to those executed during the Northern Dynasties. “One hand holding the Cintā-maṇi,” was initially taken by a flanking Bodhisattva image in the triad, but it became sculptured in either an independent image or a pair with another Bodhisattva. These two types of Bodhisattvas with the Cintā-maṇi were increasingly produced in the Northern Qi period (550–577).

These three types of Bodhisattvas can be speculated together in a broader iconographic context. They all were employed as an attending Bodhisattva to Guanyin Bodhisattva that gestures in the Abhayamudra and Varadamudra. As one of the attending Bodhisattvas in the triad, the Cintā-maṇi in the earlier periods was often formulated in the shape of a lotus bud. It is worth noticing that the Bodhisattva with the lotus shaped Cintā-maṇi was increasingly flourished in earlier periods, but its shape began to take a different format by the end of the Northern Wei period (386–534), when the Bodhisattva with the Cintā-maṇi was firmly established as the part of the triad.

Both Guanyin Bodhisattva paired with its attending Bodhisattva that holds the Cintā-maṇi and a Bodhisattva with the Cintā-maṇi, which had been derived from the triad format, became an independent worshipping image by the Eastern Wei (534–550) and Northern Qi periods. Interestingly enough, the inscription written on these newly emerged images respectively reads either “Two Guanyins” or “Guanyin.” Therefore, one can draw a conclusion that the Bodhisattva holding the Cintā-maṇi seem to have identified as Guanyin Bodhisattva, and more over, to have been viewed as a divinity that unifies Guanyin Bodhisattva with one of the former Bodhisattvas of Sakyamuni Buddha.

I believe that these two different divinities were able to be unified through the Cintā-maṇi, a medium to transfer infinite compassion of Sakyamuni Buddha to Guanyin Bodhisattva. Therefore, when lay believers see the Bodhisattva holding the Cintā-maṇi, they would see not only the compassionate Guanyin Bodhisattva, but also the compassionate previous lives of Sakyamuni Buddha. For this very religious reason, the Bodhisattva holding the Cintā-maṇi continued to be produced until the Sui Dynasty (589–618) and finally became the most popular Bodhisattva in China.

The Cintā-maṇi not only crystallizes the essence of the enlightened Sakyamuni Buddha, but also a symbol of his teachings as well as his great compassion. While the Cintā-maṇi served as an

attribute for Bodhisattva destined to follow the right way to be the next Buddha, it was a mysterious religious object for lay believers to fulfill their various wishes. Therefore, the Cintā-maṇi should be considered to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religious objects to allow lay believers to escape from sufferings in their present and previous lives, as well as to help them to surpass their ignorance and to lead them to the realm of great compassion.